

데스 밸리의 꽃

이동휘

나는 프리웨이를 달려가다 공원입구 사인을 보고 차를 꺾었다. 초입에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진다. 오웬스 레이크 바닥에는 약간의 물기가 보이고, 주위엔 하얀 수증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주위의 흙과 돌은 수십 세기의 지각 변동으로 온통 까만 색이다. 호수 옆으로 난 구불구불한 아스팔트길을 따라 올랐다.

4,956 피트의 타운 패스의 높은 언덕 위에 차를 세웠다. 산에 오르니 잡풀들이 무성히 자라 있고, 나무들이 있어야 할 곳에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고 철쭉처럼 자란 노란 꽃들이 자갈흙을 뚫고 올라와 듬성듬성 피어 있었다.



《조선문학》소설부문 신인상. 한국소설가 협회 회원, 미주 한국문인협회 회원, 저서로는 『대륙의 바람』 장편소설집이 있다.

나는 망원경을 그녀에게 주면서 주위를 보라고 하였다. 그녀는 군 지휘관이 작전 지역을 살피듯 천천히 몸을 돌리면서 바라본다. 모래 언덕과 청회색으로 된 능선이 펼쳐져 있다. 그녀는 망원경을 눈에서 떼고 얼굴을 찡그린다. 텅텅한 바람이 계곡에서 불어왔다. 그녀는 어깨에 걸치고 있던 스웨터를 허리에 동여매면서 이런 미미한 곳으로 왜 왔냐는 듯이 나를 힐끗 쳐다보고 차에 오른다. 나는 차를 출발시켜 스토프 파이프 웰스로 갔다.

“이곳이 데스 밸리의 첫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여행자들이 쉬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식당과, 간식과 선물들을 파는 가게가 있었다. 그 앞 넓은 곳엔 마차 한 대가 지난 세월을 말하듯이 비바람에 녹이 슬고 나무들이 벗겨져 나간 채 놓여 있었다.

“150여 년 전에 금광을 캐느라 사용했던 마차의 잔해가 아직도 있습니다. 저 마차에 탔던 사람들은 이곳에서 잠들었겠죠?”

그녀는 조각가가 만들어 놓은 작품을 관찰하듯이 마차 주위를 둘러본다. 나는 마차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주었다.

그녀는 진열된 물건들을 구경하다 데스밸리 지역 사진첩 한 권과 크리스탈 컵 두 개와 시원한 물 두 병을 샀다. 나는 다음 행선지인 모자이크 캐년으로 차를 몰았다. 주 도로에서 들어가는 길은 비포장 도로였다.

“기호씨, 포스터 시티에 있는 ‘로얄 호텔’ 아시죠. 일곱 시까지 커피숍으로 오세요.”

일을 끝내고 나오는데 주인 여자가 늦지 말라는 말을 나에게 했다. 얼마 전 주인 여자가 한국에서 오는 친구 관광 가이드를 해달라는 말에 나는 쉽게 대답했다.

“이런 화창한 날 여인과 드라이브하고, 윤행 복 터졌네.”

주인 강태호는 나에게 부럽다는 듯이 말을 하고 아내를 옆 눈으로 힐끗 쳐다보고 프레스 머신 쪽으로 걸어갔다. 저 사람이 보통 때는 아내를 하인처럼 말도 막 했는데 이번 한국에서 온다는 손님 이야기를 할 때는 꼭 고양이 앞의 쥐처럼 고개를 숙이고 슬슬 도망갈 구멍을 찾는 사람 같았다. 며칠 전.

“몇 년간 점통 속에서 일만 했는데 내가 안내하면 왜 안 된다고 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안 돼.”

“그럼 한국에라도 한번 갔다 오면 안 돼?”

“그렇게 가고 싶으면 이혼서류에 사인하고 가.”

“뭐?”

그는 너무 어이가 없는지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다 “에잇, 모르겠다”고 큰 소리를 내어 뱉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야릇한 호기심이 발동해 그날이 기다려졌고, 궁금하였다.

나는 두 여인을 마주 보고 앉았다. 한국에서 왔다는 여자를 눈여겨 보니 흰 피부에 가름한 얼굴, 작은 쌍꺼풀이 있는 눈, 얇은 입술을 가진 사십대 중반의 여인으로 지성미가 있어 보였다.

“서로 인사하세요. 이쪽은 저의 친구, 노수현, 저쪽은 태호씨 친구 윤기호씨. 이번 너의 여행 가이드를 해주실 분이야.”

나는 고개를 약간 숙이면서 주인 여자의 배려가 고맙다고 생각했다. 여행 출발은 언제하고 어떤 곳을 가고 싶느냐고 주인 여자가 물었다. 그녀는 곧 내일부터 출발하겠다고 했다.

“여행 목적지는 기호씨가 정하세요. 그렇게 해주시겠죠?”

그녀는 아빠한테 자기 청을 들어달라고 생긋 웃는 아이처럼 나에게 결정권을 주고는 자기들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여자들

은 무슨 말이 저리도 하고 싶고, 또 무엇이 급하다고 옆 사람은 안중에도 없을까. 나는 커피를 마시면서 저 여자는 어떤 취향을 가졌을까 하고 잠시 동정을 살폈다. 끝없이 너울거리는 푸른 물결이 있는 바다 보다는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산 속 숲이 좋지 않을까. 나는 두 사람의 대화 틈을 찾아, 봄이니까 산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쉽게 응했다. 그럼 내일 아침 여섯 시까지 여기로 오겠다고 하고 나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내가 다녔던 코스를 떠올려보고 갈 곳의 지도를 찾아 운전을 하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약도를 그리고, 쉬고 잠잘 곳을 표시한 다음 간단한 짐을 정리하여 차에 실어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 안개 길을 가르면서 나는 남쪽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그녀는 새로 접하는 도시의 아침 풍경을 보면서 가끔 나를 힐끗 바라보기도 했다. 차는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농촌의 들판 한가운데 난 길로 들어섰다. 향긋한 커피와 허기진 허리를 펴주는 세계적인 체인 스토어 햄버거 집이 보였다.

“커피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생각이 났는데,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하죠?”

“전, 커피 한 잔이면 됩니다. 수현씨는?”

“저도 그래요.”

난 커피와 도넛을, 그녀는 커피와 쿠키를 사들었다. 커피를 사들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들판 끝에 우뚝 솟아 있는 산중턱 주위로 주황색깔이 물들고 있었다. 우리는 그 광경을 한참 바라보다 차에 올랐다.

“기호씨, 제 이야기 오해 마시고 들어주세요.”

잠깐 말을 멈추고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내 앞으로 내민

다. 나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모든 경비를 지불하도록 하세요. 부부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무안한지 그녀의 귀밑이 붉어졌다. 나도 얼굴이 화끈했다.

“함께 있으면서 남남처럼 보이는 게 좀 그러네요.”

“그러세요. 편한 대로 합시다.”

편안하게 말했지만 마음이 좀 야릇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짙은 부부가 되어 있을까. 나는 핸들을 움켜잡고 꾸불꾸불한 좁은 길을 달렸다.

“수현씨, 지금 우리가 가는 행선지는 여기서 한 200마일 되는 거리입니다. 간단히 그곳을 설명해 드리죠.”

그녀는 몸을 약간 돌려 미소를 지으면서 나를 바라본다. 넓은 초원을 달려가는 길옆 여기저기서는 아침 일찍부터 발갈이하는 농부도 있고, 과일 나무 가지를 쳐주는 일꾼들과, 얇은 산등성이엔 젓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풍경이 평화롭게 펼쳐지고 있었다.

“우리가 가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1864년 ‘링컨’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보호가 선포된 후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어 오고 있습니다. 달력이 제작되기 시작한 이래 이 공원사진이 가장 많이 인쇄되었다고 합니다. 사진작가, 화가라면 이곳 풍경을 한 두 장은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을 정도로 유명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공원의 매력이라고 할까. 특징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계절과 시간에 따라, 또는 보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그 경치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자연의 웅장함, 우거진 숲, 아름다운 산세, 폭포에서 쏟아져 내리는 시원한 물줄기, 특히 1,000 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자연

의 극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밑에 서면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그렇게도 아름다워요.?”

“일단 가보세요.”

나는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12,281 피트나 되는 만년설산 매터혼 파크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내리는 머시드 강가에 의자를 바짝대고 앉아 새의 지저귀, 풀벌레 소리, 한 포기 꽃잎과 풀잎에서 자연이 주는 교훈, 특히 진정한 진리는 잔잔하고 평범함 속에 있다고 하는 영국의 낭만파 시인 ‘워어즈워드’의 말을 한번쯤 음미해 볼 만한 곳입니다.”

“빨리 구경하고 싶네요. 문학에 관심이 많은 것 같군요.”

내 이야기가 낭만적으로 들렸나, 사람은 자기의 직업을 속이지 못한다고 하지만 난 아직 작가는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옆에 있는 커피를 마셨다.

“이따 구경할 때 보충 설명을 하죠.”

“고마워요, 함께 동행해 주시고 설명까지 해주시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요.”

차가 들판을 지나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는 냇물을 거슬러 달려간다. 도시에서 느끼지 못한 깊은 산골짜기의 청량 음료 같은 풀 냄새와 고목에서 풍기는 향긋함이 싸하는 바람과 함께 나의 폐부를 뚫고 들어왔다. 나는 흘러가는 물가에 발을 담그고 물장구를 치면서 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냥 차를 몰았다. 잠시 후 그녀도 창문을 내린다.

“아, 이런 공기 처음이에요.”

그녀는 시원한 공기를 잡을 듯이 한 팔을 창문 밖으로 길게 뻗어 연신 코를 훌쩍거리고 있다.

“세상에 이런 곳도 다 있네요. 저 대기 속을 마음껏 날아보고 싶어요.”

한 마리 새가 되어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이 엉덩이를 들쭉거린다. 길 양옆으로 깎아지른 듯한 기이하고 괴상한 바위와 높은 산, 바위틈에 덩성덩성 쌓여 있는 눈. 절벽 사이로 하얀 명주 천을 깔아놓은 듯한 환상적인 물줄기, 그녀는 풍경을 가리키면서 “아, 멋있다.”는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차를 폭포수 입구에 세워두고, 우린 폭포 쪽으로 걸었다. 올라가는 사람들 내려오는 사람들로 좁은 길이 짝 메여졌다. 올라갈수록 산이 무너지듯이 들려오는 폭포수 소리에 그녀는 나의 손을 꼭 잡아 쥘다.

“이 폭포의 높이가 일천 미터로 이곳에서 제일 큰 ‘요세미티 폭포’입니다.”

하늘에 닿을 듯 정상에서 굉음과 함께 쏟아지는 거대한 물줄기가 안개를 뿜어내면서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인간의 능력으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대자연의 신비함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없이 왜소하게 만들었다. 폭포수 가까이에서 사람들의 “최고다, 멋있고 아름답다.”는 감탄 속에 그녀는 넋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 폭포수는 볼 때마다 그 전경이 달랐다. 봄엔 큰 바위산이 무너져 내릴 듯한 굉음과 함께 보는 사람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지만, 가을엔 수줍은 선녀가 내려오는 것 같은 전경이 연출되기도 한다. 내가 그녀에게 기념 사진을 찍어 주겠다고 하니 무서워 혼자 설 수 없으니 같이 찍자고 했다. 돌아가서 독사진이 없으면 후회할 것이라고 해 폭포수를 배경으로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셔터를 눌러주었다. 높이 7,569 피트의 엘 카피탄 암벽 밑에서 위를 올려다본다.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혀도 암벽의 끝이 보이지 않는지 자꾸 뒤로 물러선다.

“이 암벽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저 위용을 보세요. 세계

의 암벽등반가들이 위험한 고비를 무릅쓰고 매달리는 곳입니다. 몇 년 전 한 여자가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하반신 불구자였습니다.”

그녀는 불구자란 말에 의아스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본다.

“그 여인은 처음 도전하다 떨어져 하반신 불구가 되었지만 재도전을 위해 노력하여 이번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인간은 강한 의지력만 가지면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 빈말은 아닌가 봅니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에 고개를 천천히 끄덕거리고는 암벽을 다시 올라다본다. 그녀는 미간을 좁히면서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짓는다. 나는 그녀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차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놓았다.

“이 흐르는 물이 머시드 강입니다. 여기서 맞이하는 석양은 정말 일품입니다. 숲 속과 강에 어둠이 드리워지면 해프둠은 석양으로 붉게 물들어져 밝음과 어둠의 하모니가 장관을 이루죠. 사진 작가들이 석양의 전경을 흑백으로 촬영을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흔들림 없이 흘러가는 강물. 길목에 따라 알맞게 깊어지는 물은 크리스탈처럼 투명해서 물밑의 조약돌과 모래알까지도 선명히 들여다 보였다. 물속에서 길쭉한 물고기 한 마리가 은빛 비늘을 번쩍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 빛을 따라 드리워지는 산과 나무들의 그늘에 물속 고기의 색깔이 황금빛, 구릿빛, 청회색을 띤 푸른색, 밝은 초록색 등 여러가지 색깔을 연출해냈다. 언제부터 이렇게 맑고 고요한 곳이 있었던가. 그동안 몇 번을 찾아왔지만 오늘같이 주위가 아름답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곁에서 꽃과 풀 잎들을 만끽하는 여인이 있으므로 나의 눈에 자연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세상은 혼자보다 더불어 살아갈

때 모든 사물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녀는 이곳 저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다가 물가 조그만 바위 위에 앉아 수첩을 꺼내어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는 벌써 여러 번째 필름을 바꾸어 넣고 있다.

“이젠 저 산 정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좁은 언덕길의 풍경을 따라서 우리는 올라갔다. 높은 정상에서 아래쪽을 바라보는 절경은 정말 천애지각(天涯地角)이라고 그녀는 탄성을 내질렀다.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들판의 한 중앙으로 흐르는 맑은 시냇물, 여기저기 피어있는 이름 모를 빨강, 보라, 노랑 색깔의 꽃들, 푸른 초원 위로 춤을 추고 있는 새떼들이 곡선을 그리는 모습은 우리들의 마음을 호뭇하게 해주었다.

계곡은 천길 만길이나 되는 지구의 끝인 듯 했다. 그녀는 웅장한 대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사를 연발하며 우리가 지금 지구 위에 있는지 천상에 올라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우뚝우뚝 솟아 있는 바위산 봉우리들을 보고 좋은 곳으로 안내해줘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였다.

울창하게 서 있는 나무들이 작별 인사인 양 녹색 베일을 흔들어 주고 주홍빛 태양이 지상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한 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리는 ‘맘모스 호수’가 있는 남쪽을 향해 달렸다. 방금 넘어온 산 등성이 줄기가 끝없이 따라오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삭막한 들판만이 지친 얼굴로 펴져 있었다. 사막 식물만 자라있는 메마른 땅을 바라보던 그녀도 입을 다물었다. 나는 좁은 산길을 운전해서 그런지 약간의 피곤함이 몰려왔다. 길은 넓고 차들의 왕래가 많지 않아 차의 속력을 줄이고 있을 때 그녀가 불렀다.

“기호씨, 제가 왜 여기 온 줄 아세요?”

나는 그녀를 한번 흘끗 쳐다보았다. 가정을 팽개치고 정부(情夫)를 따라 나온 여자 같지는 않고, 시간과 돈을 소비하러 온 유한마담 아니면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이야기는 서로가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상대방한테 말하는 것이 수월할 때가 있다. 그것은 스스로 일그러진 자신의 얼굴을 잠시나마 숨길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차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상황에서 그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았다.

“전 다른 등지로 날아간 새 한 마리를 다시 잡아 볼까하여 지구를 반 바퀴나 돌아왔죠. 그런데 얼굴 한번 잠깐 보고 말 한마디도 못 해 봤어요.”

남에게 말하긴 쑥스럽고, 그렇다고 그냥 가슴에 묻어 두기는 답답한 사연이 있는 여자인 것 같았다. 나는 다시 그녀를 흘끗 쳐다봤다.

“별난 여자로 보이죠.”

“아뇨. 그런데 그 이야기 듣고 싶어지는 데요.”

“오래 전에 놓쳐버린 새였어요.”

그녀는 감정을 묻어내지 않으려고 고개를 차창 밖으로 돌려 숨을 몰아쉬었다.

“대학 캠퍼스를 걷다 민요가락 소리를 듣고 가까이 가서 봤어요. 그때 그 남자의 흥부가 소리에 그만 반해버렸죠. 그래서 저도 민요 동아리에 들어가 그를 따라 다녔어요. 추운 겨울 폭포수 아래서 우렁차면서도 가냘픈 소리를 낼 때는 저의 뼈마디까지 찌르르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민요가 뛰어난 우리 민족의 가락이란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촉망받고 있을 때 민요는 고리 답답하다는 말을 남기고 그 사람은 어디로 사라졌어요. 제가 졸업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고 있을 때 그 남자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부

인이 바로 저의 친구란 말을 듣는 순간 자존심이 확 구겨지고 질투심이 도발하면서 그를 만나고 싶어 수소문을 하니 미국으로 이민 떠났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제가 이상한 여자로 보이죠?”

나는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우연히 만나보면 그 옛날의 순수한 감정이 솟아나겠지. 그런데 이 여자는 단순한 만남이 아닌 것 같았다.

“기호씨를 처음 보는 순간 미국의 청교도적인 사고방식과, 무슨 일에 실수할 사람이 아니란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쉽게 따라나섰죠. 그러나 제가 기호씨를 유혹할지도 모르죠. 지금 혼자죠?”

내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봤을 때 강렬한 욕망의 빛이 당장 나에게로 달려들 것 같았다. 그녀의 매혹적인 표정에 오랫동안 고요히 있던 가슴속에 야릇한 파동이 일어났다. 당장 차를 세우고 그녀의 깊은 몸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나무 한 그루 없는 메마른 정사보다 별빛이 흘러내리는 밤을 위해 나는 그냥 달렸다.

그녀는 산자락과 인색하게 돋은 선인장들을 뒤로하면서 깊은 심연 속으로 침몰해버린 지난 이야기를 건져 올려 계속한다. 자신이 배운 것을 한번 성취해보지 못하고 부모의 등쌀에 결혼해 두 아이를 키워 대학에 보내고 나니 생활이 허전하였다. 늦었지만 자신이 하고자 했던 길을 다시 선택해 보려고 했을 때 굳어진 머리, 손놀림이 자연스럽지가 못하였다. 마음을 고쳐먹고 가정에 충실할까 했지만 남편은 회사에서 진급이 되자 출장과 골프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아이들도 자기들의 생활에 바빠 엄마의 존재조차 잊고 있었다. 그런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 속을 헤매고 있을 때 깊은 우물 속에서 두레박에 담겨져 올라오던 초록색 그림 한 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폭포수 아래서 듣는 사람의 심장을 멈출 듯이 울부짖고, 가슴을 저미게 하며 가늘게 흐느끼던 그 소리를 쉽게 떨쳐내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

다고 했다. 그녀는 옆에 있는 냉수를 들어 마신다. 나는 이 여자가 중년의 사춘기 병을 톡톡히 앓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쪽 뺨어있는 길 위를 달렸다.

차는 맘모스 호수 입구로 들어섰다. 타운은 조용했고, 통나무로 건축된 옛날집들이 많았다. 들판을 달려올 때 불그스름한 빛이 있었는데 맘모스인에 들어서니 그 주위는 잘 익은 감 빛깔 같은 노르블그레한 빛이 어려있었다. 높고 숲이 우거져 정적이 감돌아 풀벌레 기어가는 소리까지 나의 귀청을 울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먼저 샤워룸으로 들어갔다.

나는 맥주 한 캔을 들고 발코니로 나와 섰다. 앞 산 위로 스키 타러 올라가는 케이블 선이 하늘과 맞닿아 있었다. 저 위에서 하얀 눈 위로 미끄러져 내려오면 시원하고 통쾌함을 느낄 것 같았다. 미국 오면 스키 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일은 맥주의 거품처럼 사라졌지만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일은 꼭 성취하고 싶었다. 이번 노수현과의 여행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맥주 한 모금을 넘기면서 방안을 들여다봤다. 그녀는 아직 샤워를 하고 있는지 침실에 보이지 않았다. 전기 스탠드가 놓인 테이블 양쪽으로 침대가 놓여 있고, 침대 머리 위에는 이렇다 할 특징도 없는 풍경화 한 점이 걸려 있다. 방에 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샤워를 하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오랫동안 말아보지 못한 여자의 살 냄새에 잠자고 있던 나의 세포들이 일어나려고 여기저기서 꿈틀거렸다. 여자도 잠이 안 오는지 몸을 뒤척거렸다. 그때마다 나의 세포들이 곤두서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자는 척했다. 낮에 불타고 있던 그 욕망이 아직도 저 여자의 가슴속에 살아 있을까. 살아 있다고 해도 그녀는 쉽게 이쪽 침대

로 건너오지는 못할 것이다. 내 몸 속에 있는 성의 세포들이 건너가
자고 아우성을 치고, 한쪽에선 불장난을 하면 안 된다고 서로가 싸우
다 잠이 들어 새들의 짹짹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아침 햇살을 받
아 늘어진 커튼이 연한 핑크 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일어나 옆
침대를 바라보니 그녀는 고단한지 깊은 잠 속에 빠져 있었다. 나는
밖으로 나왔다.

높은 산 계곡에서 올라오는 새벽 안개가 신비로운 기운처럼 온 계
곡에 퍼져 있었다. 전나무 잎새에 고인 안개 이슬이 미풍에 스칠 때
마다 뚝뚝 물방울이 이마에 떨어지고, 이슬에 젖은 그윽한 나무들의
향기가 폐 속 깊이 파고들었다. 인간 세상의 모든 소란이 없고 오직
자연의 숨소리만이 엄숙한 침묵으로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런 숲 속
길을 같이 온 여자와 함께 걸었으면 여행길이 덜 피곤할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주위를 산책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기호씨 보기보다 냉정하네요. 혼자 산책을 하고.”

여자의 곱지 않은 눈빛은 혼자 산책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란 사
실을 쉽게 느꼈다. 어찌 남자가 냉혈동물처럼 여자 혼자 잠자게 할
수 있느냐는 원망의 화살이 나의 가슴속으로 날아들 때 왜 일까 하는
생각이 번득 일어났다. 그것은 옛애인한테 냉대받은 것을 나에게 보
상할 듯이 나를 훑고 있었다. 나는 둔한 척 짐만 챙겼다.

나는 타운을 벗어나 395번 남쪽 프리웨이로 들어섰다. 들판은 점
점 사막으로 변하여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았다. 들풀들이 떠나가는
길손들한테 살랑살랑 손을 흔들어 주고 있을 뿐이다.

“지금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데스밸리 공원 즉, ‘죽음의 계곡’ 입니
다.”

나는 그곳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내 말을 듣자 그런 곳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알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가볍게 끄덕거린다.

“사람이 산다는 것에 대한 맛을 모르면 이곳을 찾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봐야 별 볼일 없는 곳이니깐요. 그러나 화려함은 없지만 맛이 있는 곳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노을을 바라보면 내 가슴은 데스밸리 사막같이 황막해지죠.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여인처럼 저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가보면 실망하실 것입니다.”

“기호씨, 왜 그런 곳으로 저를 안내하죠?”

“마음이 내키지 않으시면 안 가도 됩니다.”

“아뇨, 가보고 싶어요. 전 살아가는 맛은 모르지만 말을 듣고 보니 보고 싶네요.”

나는 그녀가 가보겠다고 해 계속 설명을 했다.

“폭이 4~12 마일, 길이가 남북으로 120마일, 총 5천 7백만 에이커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을 가진 곳입니다. 그리고 여행은 늦가을부터 봄철이 가장 좋은 시기지요. 여름엔 화씨 130도에 육박하는 기온이라 건조한 열풍이 불어 견딜 수가 없는 기후입니다. 원래 이곳이 바다속이었는데 수 십 세기를 지나는 동안 지각변동으로 바다는 막히고, 막힌 곳의 물이 증발되면서 소금밭을 형성하였다고 해요. 이곳에 인류가 살기 시작한 것은 약 5천년 전부터이며 서기 1천 년경에 물이 나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제법 큰 규모의 인디언 부락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외부에 알려진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금광러시가 있었던 1850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 300명으로 구성된 광부들이 금광을 찾으러 가다 길을 잘못 들어와 120 마일이나 계속되는 모래 들판에서 화씨 130도의 뜨거운 열은 솟아오르고, 온몸의 수분을 삼시간에 말려버리는 건조한 열풍이 불어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식수는 이미 고갈이 났고

계곡 어디에서도 물 한 방울 솟아나는 곳을 찾지 못했지요. 답사 팀은 두 편으로 나뉘어 이곳을 빠져나갈 길을 찾았으나 혹독한 자연의 냉정함 앞에서 방향을 잃고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런 샌드 듀스 언덕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샌드 듀스 언덕은 회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벌겋게 타오르는 언덕으로 다시 변하죠. 잠시 후 해가 좀더 올라오면 황금색으로 변하는 모습은 정말 장관입니다. 그때 모래 언덕의 곡선은 그리스 여신 조각상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완전히 해가 뜨면 하얀색으로 옷을 갈아입는 신비스러운 모래 언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개척의 나라라고 합니다. 황무지의 들판을, 한 조각가가 돌을 깎고 닦아 한 작품을 완성한 것같이 이 땅도 그렇게 하여 거대한 한 조각품의 땅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녀는 내 이야기에 무슨 개똥 같은 역사관을 말하고 있느냐는 듯이 나를 바라본다. 이 사회에서 살아보지 않고 이 대륙 안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겉만 보고 있는 사람에게 생존경쟁의 치열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먼저 정확하게 표적에 화살을 맞히느냐 하는 곳이 이 사회다.

비포장도로를 올라온 차가 ‘모자이크 캐년’ 파킹 장으로 들어가니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차에서 내려 우리도 다른 관광객들을 따라 걸었다.

“조물주가 색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무늬를 보여주기 위해 크고 작은 산봉우리를 만들어놓고 거기다 홍, 청, 녹색의 색상을 나타내주는 벌거숭이 산 구릉입니다.”

그녀는 앞에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색채들의 모습에 넋을 놓고 묵묵히 둘러본다.

“수현씨, 사진 안 찍으세요? 여기 서 보세요.”

나는 그녀가 들고있는 카메라를 받아 뒤로 몇 걸음 물러섰다. 렌즈를 통해 보이는 그녀의 표정이 우울해 보였다. 나는 배경을 바꾸어가면서 몇 장의 사진을 찍었다.

“이곳엔 화가들이 많이 찾아와 새로운 색상을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연의 절경이 잘 조화된 곳이라는 뜻이지요.”

그녀는 나한테서 카메라를 받아 주위의 배경을 열심히 찍었다. 그 모습은 아주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보여 사진 작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음 행선지로 운전을 하였다.

“이곳이 뱃워터입니다. 미국의 지형에서 제일 낮은 282피트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저기 보세요. 저 하얀 것이 소금입니다. 저 가운데 손바닥만한 곳에 물이 고여 있죠. 저 물을 마시면 죽는다고 합니다.”

“기호씨, 저 물을 마셔볼까요?”

“그렇게 하세요. 단, 저 물을 가져가 남편 앞에서 마셔야 합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마시면 여기서 마셔야죠.”

‘내면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말 같은데, 왜? …….’ 나는 더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죽고 사는 것은 저 여자의 일이지 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조금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순간적인 감상에서 예상 못하는 행동을 잘하는 것이 여자라고 했다. 나는 어떤 돌발사고가 일어나기 전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나는 자브리 스키 포인트로 갔다. 관광시즌이라 그런지 어디로 가나 차들이 많았다. 약간 경사진 언덕을 올랐다. 신의 조화와 자연의 변화로 생겨져 있는 저 아름답고 기묘한 모습들. 내가 어떤 미사여구로 표현한들 저 모양을 활자화할 수 있을까. 사람 몸의 실핏줄이 포개진 것처럼 울퉁불퉁한 산 능선과 색의 조화는 마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 이곳의 산과 들판은 청암색 같은 빛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녀는 주위의 능선을 묵묵히 바라보고 서 있다. 무슨 생각이 났는지 그녀는 나에게서 카메라를 받아 자리를 옮겨가면서 수십 번도 더 셔터를 눌러대고 있었다. 그렇게 많은 사진을 찍고 언덕을 내려올 때 문득 생각이 났다.

“제가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인데요?”

“이 지역을 천신만고 끝에 계곡횡단을 성공한 한 여인이 남긴 말 ‘Goodbye! Death Valley.’라는 작별 인사에서 그 이름이 연유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여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네요.”

“자, 이제 우리도 서서히 떠나갑시다.”

날씨는 덥고 바람 한 점 없는 기후 속에서 엔진을 걸고 에어컨을 약하게 틀었다. 그녀는 차를 타기 전 주위를 한번 쪽 둘러보고는 무거운 표정으로 차에 오른다. 상당히 피곤할 것이란 생각에서 나는 차의 속력을 올렸다. 그녀는 계곡의 초입에서 꺾은 노란 꽃 한 송이를 차장 밖으로 던진다.

“데스 밸리여 안녕! 너에게 꽃 한 송이를 주고 간다.”

그녀의 음성은 잠겨 있었다. 이 계곡에서 죽은 영혼들한테 묵념이라도 하는지 눈을 감는다.

“수현씨, 이제 두 시간 후면 밤과 낮이 없고, 언제나 아름다운 금발의 무희들이 무대 위에서 펼치는 환상적인 쇼도 볼 수 있고, 운이 좋으면 일확천금을 가질 수도 있는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합니다.”

차창 밖으로 설새없이 멀어져 가는 풍경에 눈길을 주고 있을 뿐 그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나는 운전을 하면서 결눈질로 그녀의 얼굴을 훑쳐봤다. 굳은 표정에 간혹 얇게 홍조를 띤 입술을 꼭꼭 깨물기만 하고 있을 뿐 말이 없다. 몸도 피곤한데 주위가 너무 건조하고

볼품이 없어 지루했을까. 그래도 사진은 이곳에서 더 열심히 많이 찍는 것 같았다. 그런데 조금전 차에 오르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산에 홀로 두고 돌아서는 사람처럼 넓은 들판만 하염없이 보고 있던 모습이 뇌를 스쳤다. 나는 그런 복잡한 일을 떨쳐버리기 위해 흘러간 한국가요를 들으면서 가끔 그녀를 훑쳐보았다. 그때 저 깊은 물 속에서 울리는 듯 가느다란 음성이 나의 귓전을 울렸다.

“기호씨, 좀 쉬었다 가요.”

나는 그녀를 힐끗 쳐다봤다. 달리는 차창 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언제가 이곳을 지나면서 본 타운을 생각하면서 나는 속력을 내었다.

한 시간쯤 운전을 하고 나오니 라스베가스와 LA의 갈림길이 있는 한 타운이 나왔다. 나는 벨리 호텔 간판을 보고 들어갔다. 이층 방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침대 위로 쓰러지면서 격렬하게 울음을 터뜨렸다.

“아, 호호 흑.”

어깨를 들쭉거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아무런 말도 행동도 할 수가 없었다. 울고 있는 그녀의 등은 애처롭기 그지없이 보였다. 자기 스스로의 증오가 아니면 연민이 있을 것이다. 가끔 사람들은 자기 가 혐오스러울 정도로 못 견디게 화가 날 때 그 누구를 잡고 화풀이를 하든지 아니면 통곡하고 싶을 때 마음껏 울고 나면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들이 다 풀리고 시원스럽고 새로운 어떤 일을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녀는 울면서 간간이 낮은 소리로 말을 토해 내었다.

“나쁜 년, 아니 짐승만도 못한 년, 차라리 죽어, 죽어버려 호호.”

그녀는 자신을 확대하고 있었다. 무슨 나쁜 일을 저지르고 이곳으로 도피해온 사람일까. 나는 창문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먼 지평선

너머로 태양은 한 여인이 괴로워하는 울음소리를 뒤로하고선 서서히 꺼져가고, 눈물샘의 물을 다 펴 올렸는지 울음소리도 점점 가늘어져 가고 있을 때 나는 침대 옆으로 가 앉으면서 그녀의 어깨를 토닥거리 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상체를 일으켜 나의 가슴에 안기면서 두 팔로 목덜미를 감으면서 다시 큰 소리로 영영 울었다. 나는 여인을 감싸안고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잔잔한 나의 마음을 흔들었다. 난 아직 자신을 확대하면서 물어보지 못했다. 사람은 때론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실수를 뉘우치면서 배개를 적시는 눈물을 쏟아보지 않고는 진정한 자기를 돌아볼 수 없다는 말이 떠올랐다.

“기호씨. 미안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요.”

나는 고맙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목에 감고 있던 팔을 풀고는 뒤로 물러앉았다. 슬피 울고 있던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를 흘리는 모습이 몹시 불쌍해 보였다.

“한때 남성적인 매력이 넘쳐 있었죠. 검은 머리에 긴장한 체구, 우렁찬 목소리, 그런데 머리칼은 반쯤 남았고, 빗깎마저 늦가을 배추밭에 내리는 하얀 서리같이 변화된 모습, 배는 임신한 여인처럼 하고 있는 강태호를 보는 순간 저의 그리움은 다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강태호. 그 동안 내가 보아 온 그와 이 여인의 색깔과 그림의 선이 잘 맞아지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남녀의 사이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둘만이 알고 있는 묘한 밑그림이 있는 것. 그래서 주인 여자가 강태호한테 눈을 흘긴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녀의 두 눈엔 아직도 눈물방울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아랫입술을 깨물면서 눈을 지그시 감는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정말 강태호를 잊고 살아가겠다는 것인지. 혹시 여기서……. 나는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때 눈을 뜨고 입가에 가는 미소를 흘리면서 말을 했다.

“기호씨, 저에게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해줘 정

말 고마워요. 저도 기호씨, 글 쓰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게요.”

나는 몰래 나쁜 짓을 하다 들킨 아이마냥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녀는 나의 손을 가만히 잡는다.

“데스 밸리 아주 멋진 곳이었습니다. 병풍처럼 펼쳐져 솟아 있는 산들, 아름답게 굴곡져 있는 모래 언덕, 흙 위엔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산과 계곡. 메마르고 건조한 바람과 더위만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곳에서 죽음같이 존재하면서 자기의 개성과 멋을 내뽐고 있는 계곡이 나를 조롱할 때 ‘두 눈을 뜨고 사물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으면서 왜 무의미한 길을 걷고 있느냐. 인간의 사랑은 돌아서면 상처만 남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연과 사랑할 때 참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기호씨, 데스 밸리로 참 잘 안내해 줬어요. 이제 모든 것을 다 펼쳐버리고 인생의 멋과 새 삶을 한번 살아 보고 싶어요.”

그녀는 나의 가슴으로 안겨 들었다. 넘어가는 햇살이 부챗살처럼 퍼져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을 때 인생의 멋과 예술을 사랑하는 연인이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그녀를 꼭 안아 주었다.

카스트라토

임영록

나는 사막 한가운데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운전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숨죽였고 움직이지 않았다. 허름한 커피숍 화장실 벽에 붙어있던 이름 모를 사막의 낡은 사진처럼 그렇게 고정되어 있었다.

피닉스 256마일.

가끔씩 지나는 표지판이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아니, 그들이 나를 스쳐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렇게 여섯 시간을 넘게 운전을 하고 있었다. 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연적(戀敵) 콜린 시크먼을 납치하려 이를 악물고 만나질 넘게 차를



2000년 《미주 중앙일보》 신춘문에 소설 입선. 2001년 《미주 한국일보》 신춘문에 소설 당선. 작품 「떠 있지 못하는 섬」 「누가 나를 부르는가」, 「LA에서 밴쿠버까지」 등을 발표.

물던, 우주비행사 리사 노워크의 증오의 정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중력과 무중력 사이를 운전해야 하는 깊은 자괴감이 아니었을까. 아무튼 그녀와 나는 크게 다르지 않다. 중력을 놓아버려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렸으니까. 차는 계속 어디론가 달린다. 멈추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낯설음과 멈추었을 때의 두려움을 가늠해본다.

그들이었을까, 아니면 나였을까.

내 인생을 그렇게 빠르게 스쳐 지나간 것은.

사막은 이미 끝나 있었다. 해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다. 주위의 윤곽도 흐려졌다. 높지 않은 산과 들녘을 내다보는 언덕이 펼쳐지고 있었다. 전나무처럼 보이는 나무숲 사이로 들판도 보였다. 사람들이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 부르는 이 시각을, 오히려 박완서는 낯설고 적대적이던 사물들이 부드럽고 친숙해지는 시간이라 했었지. 그리고 보니, 마치 고향으로 가는 정겨운 길처럼 문득 착각이 들기도 했다.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을 가본 적이 있었다. 버려진 땅처럼 그곳은 개발의 손마저 미치지 않았다. 마을 어귀 신작로는 질척거렸고 길옆의 무성하던 아카시아 나무들은 온데간데없었다. 마을 앞 군부대 옆으로 삼 층짜리 군인아파트 몇 동이 교만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아련한 토막난 기억들이 산과 들을 보며 띄엄띄엄 되살아났다. 하늘을 찌르던 마을 뒷산은 늙어서 등을 구부리고 땅에 바짝 엎드려 있었고, 오금이 저릴 만큼 시퍼렇게 끓던 개울은 무릎에서 찰랑거렸다. 낯익은 사람을 한사람도 만날 수 없었다. 마치 드라마 한 편을 찍기 위해 만났다 헤어진 사람들과 버려진 세트장 같았다.

— 우리들의 배역은 이제 끝난 거야.

어디를 다녀오는 길이었을까. 나는 운전을, 아내는 옆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아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같이 오래 살아보면 안다. 말하지 않아도 양어깨로 전달되는 무겁고 착잡한 공기와, 음성의 높고 낮음과 넓고 굵음의 그 깊은 차이를. 아내는 이 말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감내했을까.

난 ‘역할’과 ‘배역’의 유사함과 차이를 잠시 생각했다. 단어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수동과 피동의 차이와, 아내와 나의 처지의 연관을 대입해보았다. 그리고는 피식 웃었다. 아니, 피식거리며 웃음이 새어나왔을 것이다. 아내가 고개를 돌려 나를 노려보았다. 아내의 눈은 동공이 터질듯 팽창해 있었다. 아내는 무슨 말을 다시 하려다가 입술 한쪽을 실룩거렸다. 조소였다. 증오의 눈빛이 시간 따라 그림이 바뀌는 거리의 광고판처럼 체념과 조롱으로 금방 바뀌어 졌다.

— 차. 세워줘요.

처음보다 더욱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내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그것을 설명해야 하는, 그 구질구질함과 소름 돋는 단호함의 괴리가 은근히 부아로 끓어올랐다. 길옆 가로수를 차로 받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빠르게 지나치는 차들처럼 스쳐지나갔다. 액셀을 더 밟았고 운전대를 잡은 손을 더욱 꼭 쥐었다.

화가 나면 입을 닫아 버리며 고집을 쉽게 꺾지 않는 아내에게, 그 날만큼은 지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내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뛰어 내릴 듯 핸드백을 움켜쥐고 있었고 문가로 바짝 다가가 있었다. 같은 자리에 앉아도 말굽자석의 남과 북극처럼 가운데를 비워놓고 떨어져 앉아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였다.

— 이제 더 이상 지긋지긋한 이사는 없을 거야.

김포공항에서 시애틀 행 비행기를 타면서 엄마가 한 말이었다. 아버지로 인해 우리 가족은 셀 수 없을 만큼의 짐을 싸야 했다. 군인 가족들은 모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으로 알았었다. 타협을 모르는 아버지의 성격과 홀로 객지에 머물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어머니가 만든 산물이었다.

80년대 신군부의 집권으로 반대편에 섰던 군인들은 줄줄이 옷을 벗었다. 아버지는 군복을 벗었고 형은 중학교 일학년 교복을 벗게 되었다. 난 초등학교 삼학년이었다. 친구가 생길 만하면 떠나야 했던 나는, 이미 이별에 익숙해 있었다. 가슴에 담아두기보다 머리로 생각했고 남겨지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간편하다 여겼다. 패장은 유배를 가게 마련이라는 아버지의 어려운 말을, 엄마는 형과 나의 교육을 위해 남은 생을 거는 것이라 알기 쉽게 일러주었다.

— 우린 카스트라토가 되는 셈이지.

형의 냉소와, 뜻은 모르지만 ‘카스트라토’라는 어감이 무척이나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었다. 슬픔과 기쁨, 비애와 설렘 사이의 어설픈 느낌으로 혼란한 나에게, 형의 일갈은 ‘돌격 앞으로’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이륙하는 비행기 창밖으로 내리는 여우비를 바라보면서 금장식이 달린 긴 칼과 갈기가 긴 흑마, 붉은 전포의 흑기사를 상상하고 있었다. 말없이 떨어지는 희미한 불빛처럼 그렇게 난 또, 어설픈 이별을 하고 있었다. 여성의 고음을 간직하기 위해 변성기 전에 거세를 했다는, 형의 카스트라토와 나만의 카스트라토는 같은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다.

AOK - all systems ok. 우주비행사들이 쓰는 말이다. 모든 시스템이 이중삼중의 보완 구조로 인류가 만들어낸 계기 중 완벽에 가장

근접하다는, 우주선. 그들은 우주선의 탑승으로 비로소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고 말한다. 한치의 착오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수년 동안 수백 번의 반복적인 트레이닝을 받는다. 우주비행사 리사 노워크는 말할지 모른다. 그 끊임없는 완벽함의 추구가 공허의 감성을 무참히 흔들었다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고.

아내와 나, 집안 모두가 AOK이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나는 매일 아침 다섯 시 반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출근을 했다. 아내는 콜롬비아산 바닐라향의 커피를 끓여 작은 보온병에 담아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닐라 향은 AOK의 상태를 알려주는 계기판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아내는 딸 제니퍼를 깨워 학교에 보내고 집안 청소와 자신의 일을 시작하곤 했다.

난 회사의 카페테리아에서 아침과 점심을 먹었다. 나가서 먹으면 절차가 복잡했고 귀찮았다. 회사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위장된 군사 기지이었다. 은퇴 군인들의 주택 단지처럼 높은 담이 둘러져 있고 입구는 장전된 권총을 찬 두 명의 경비원이 지켰다. 타운하우스 같은 여러 동의 건물에 적지 않은 인원이 일했다. 서로가 하는 일을 서로가 몰랐고 알고고도 하지 않았다. 내가 십 수 년 전에 이 회사에 들어오면서 서약한 첫째 조항이었다.

내가 하는 일을 왜 위장된 기지에서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런 성질의 일이 아닌데. 어렴풋이 내린 결론은,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위장시켜 준다는 점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위장의 이중 장치 같은 셈이었다.

난 컴퓨터 앞에 앉아 설계도를 하루 종일 그렸다. 세계 각지에 흩어진 미군 기지를 위한 것이었다. 때로는 군용 아파트와 도로, 그와 관련된 지하 설비나 병커에 이르기까지, 나의 마우스는 몇백 야드의

지하와 지상을 오르락거렸다. 설계도는 네트워크로 상급 관서로 보내졌다. 하지만 곧장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군사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계획이 변경 또는 보류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처음엔 너무 약이 올랐었다. 점 하나, 선 하나에 아련 눈을 모니터에 바짝 들이대던 내 자신을 참을 수가 없었다.

— 왜 버려질 것을 그리라는 거지?

— 예산 청구서에 들어가야 하니까.

— 노랑머리의 동료가 엄청 당연한 것을 왜 묻느냐고 눈살을 찌푸렸다.

— 무슨 문제 있어? 월급 받는데 지장 없잖아.

그가 다시 내뱉었다. 내가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지 그는 의자를 돌려 자신의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그의 노란 뒤통수를 후려갈기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내가 왜 이따위 선을 하나 그려 넣는데 복잡함 수치 계산이나 무게 따위를 재야 하는지. 당연히 일에 대한 열정과 성의가 떨어지기 마련이었다. 시간을 맞추고자 서둘러 대충 보내면 어떻게 알았는지 상급부서의 담당으로부터 난리가 났다.

코드 I-4를 벙커 외벽 설계에 아직까지 적용하는 미친놈이 있다니. 아니 이따위 비효율적인 설계로 어떻게 예산을 절감하나. 오 마이 갓. 공기 배출구가 이렇게 대가리를 내밀고 적의 전투기에게 위치라도 알려주자는 거야? 그것도 앵커 볼트 공법으로? 너 적군이야 아군이야. 내일 퇴근시각 전까지 수정하여 다시 보낼 것.

먼저 퇴근을 하던 노랑머리가 말했다.

— 이봐, 천천히 하라구. 급할 것 없어. 어차피 우리들은 잉여 인간이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프로젝트를 대비한 잉여 자원인 셈이지. 소리치는 보스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책을 덜어주는 일

을 하는 것뿐이라구.

그렇게 가끔 늦게 퇴근을 하면 아내는 의아한 눈초리로 나를 맞았다.

— 이상한 일이군요. 네 시 반이면 정확하게 퇴근을 하는 사람이.

하지만 그런 일도 오래 전의 일이었다. 아내는 늦은 이유를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당연히 나는 답하지 않았다. 나의 행동반경이 아내의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프로젝트를 받아보면 이 설계도가 예산을 위한 것인지, 진정 건축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감각이 내게 생겨난 것처럼, 아내 또한 마찬가지였다.

아내와 나, 집안 모두가 AOK이었다. 그 일이 있기까지는.

나는 언제나 아침 여섯 시면 집을 나섰다. 운전을 하면서 바닐라향의 커피를 마셨다. 10번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CNN라디오 뉴스를 듣거나 가끔 한국방송을 들었다. 같은 뉴스라도 스타일이 전혀 달랐다. CNN의 앵커는 심각한 뉴스도 농담을 섞는 것을 잊지 않았고 한국방송의 앵커는 재미있는 뉴스도 심각하게 말했다. 오히려 설렁탕 집을 비롯하여 자장면, 사진관, 꽃집, 노래방, 마켓 등의 어설피고 어색한 광고가 들을수록 재미있었다. CNN이 잘 닦인 아스팔트 길이라면 한국방송은 뽕양계 먼지가 이는, 고향의 신작로 같았다.

처음의 미국 생활은 치열한 복잡함과의 연속적인 만남이었다. 수많은 인종과 각양각색의 자동차가 쏟아내는 치열함, 끝없이 펼쳐진 넓은 땅덩어리와 곧게 뻗은 도로의 불안한 단순함,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의 영역의 모호함. 팽팽하고도 진땀나는 긴장감과 치열한 복잡함이 오히려 자신을 안으로만 가두어 버리며 소통을 막아서 일까. 수십 수백 갈래로 퍼져나가며 정신을 혼란케 하는

것들을 한 가닥으로 묶어 버리는, 급조된 자아의 허상을 문득 느낄 수 있었다.

그 낯선 촉각은 블랙홀처럼 공허와 고독을 불렀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눈이 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했다. 가슴을 오므리고 누웠고 주먹을 쥐어야 잠이 들었다. 그렇다고 불안의 실체를 딱히 형상화할 수도 없었다. 막연한 불안감 앞에 내 자아는 치적치적 가랑비를 맞고 서 있을 뿐이었다.

형과 나는 그것과 싸우는 방법이 달랐다. 형은 될 수 있는 한 카스트라토가 되기 전의 자신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면, 나는 그 반대였다. 형은 한국 친구들만 사귀고 어울렸고, 나는 한국 사람들을 제 외한 아이들을 친구로 삼았다.

아버지는 밤이면 타운하우스 베란다에 서서 달빛을 바라보았다. 대지의 불빛에 달빛이 사위어도 눈을 떼지 않았다. 아버지는 달빛보다 그 빛에 숨겨진 추억을 찾는 사람처럼 보였다. 엄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애써 외면했다. 엄마는 틈틈이 세탁소에서 파트타임을 했다. 아버지는 그 시간에 한국 신문을 앞뒤로 몇 번씩 꼼꼼히 읽었다. 몇 개월 만에 엄마는 세탁소의 사장이 되었고 아버지는 보조가 되었다. 엄마는 잔소리가 늘게 되었고 아버지는 담배가 늘게 되었다.

아버지와 형은 자주 부딪쳤다. 외부와 소통하지 못하는 불안과 소외의 좌절을 서로가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한번은 학교에 불려다녀온 아버지가 형을 방에 가두고 우산대로 온몸을 두들겨 팬 적이 있었다. 형의 잦은 결석을 통보받은 아버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둔탁한 소리는 베란다에 홀로 쪼그리고 앉아있는 나에게까지 들렸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가 내 발등을 적시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지. 문득 낯설음에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엄마는 왜 아직까지 돌아

오지 않는 것일까. 몸이 떨려 왔다. 담배를 물고 베란다로 걸어 나오는 아버지는 비 맞은 사람처럼 몰골이 흉연했다. 네가 가 봐라. 아버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부릅뜬 눈가로 맺힌 물기가 내게 말하고 있었다.

방은 어두웠고 바닥엔 부서진 우산대가 널브러져 있었다. 사지를 묶인 맹수의 몰아쉬는 숨소리처럼 거친 숨이 음습한 방을 울리고 있었다. 형의 웃옷은 찢어져 있었고 피멍이 든 피부가 드러나 있었다. 피 냄새. 비린내였다. 형. 경찰에 신고할까? 그렇게 말하려다가 그만 두었다. 형의 노력보는 흰 눈동자가 나를 슬며시 주저앉게 만들었다.

— 언젠가는 한국으로 꼭 다시 돌아갈 거야.

형은 내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자신의 거세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자신의 조각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각오로 들렸다. 한국에서 형의 성적은 전교 상위권이었고 모범생이었다. 그만큼 형의 원망은 점점 깊어졌고 더 불량해져 갔다.

형은 학교에서 한국 학생들만 모아서 'K 서클'을 만들고 회장이 되었다. 물론 그들은 학교와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걸도는 형과 같은 부류의 학생들이었다. 엄마 아버지가 없는 낮에는 그들이 집에 진을 쳤다. 아버지 대신 담배를 피워댔고 술을 마셨다. 그리고 흥이 나면 기타를 치면서 밥딜런의 노래를 불러댔다.

— 내가 발가벗겨져 쪼아 앉혀지기 전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건/열차 한 가득한 바보들이 자기장에 들러붙어 버린 거야./찢어진 깃발에 반짝이는 반지를 찬, 한 집시가 이렇게 말했어./애야, 이건 더 이상 꿈이 아니고 현실이란단.

그들의 영어 발음이 투박하고 촌스럽게 느끼는 데는 몇 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어깨를 들어 올린다거나 과장된 손짓으로 미국사람처럼 행동했지만 그럴수록 내겐, 더욱 우스꽝스럽게만 느껴졌

다.

클래스에서 만나는 한국에서 금방 이민 온 아이들이 한 둘 있었다. 그들은 내게 촌스런 존재였고 과거의 나의 촌스러움을 되살리는 존재였다. 당연히 그들과 가까이 지내는 일은 없었다. 난 백인아이들과 어울렸고 그것이 진정한 카스트라토의 길이라 믿었다. 이름도 김정식이라는 촌티 나는 이름대신 제이슨 킴으로 바꿨다. 하지만 가끔 클래스에서 진땀나는 일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온 애들이 영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때, 선생님들은 내게 도움을 청했다.

— 제이슨, 네가 통역 좀 해주겠니.

아. 코리안이었지.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급우들 사이로 나지막한 이방인의 언어를 토해내는 내가 싫었다.

아내와 나, 집안 모두가 AOK이었다. 그 일이 있기까지는.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 선을, 그리고 또 선을 그었다. 내가 일하는 방에는 도서실처럼 칸막이가 된 책상이 여섯 개가 있고 네 명의 인원이 일을 했다. 한 명의 직원은 몇 개월 전에 해고를 당했다. 근무 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몇 번 즐긴 것이 이유였다. 작업 중 일반 인터넷의 연결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해킹을 당할 염려가 있어 누누이 강조되는 보안사항이었다. 감찰반의 모니터링에 적발되기 전에는 아무도 그가 인터넷 게임을 즐겼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 후로, 칸막이와 빈 책상이 서로와 서로를 더욱더 완벽하게 격리시켜 주게 되었다. 물론 대화의 필요성은 원래부터 없었다. 보안시스템이 완벽하게 장치된 네트워크 이메일로 프로젝트를 받고 보내졌다. 단절과 완벽의 시스템이 나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서서히 죽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가끔 해고당한 직원이 나였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은

입사하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부터 숨처럼 멈추지 않았었다. 처음 몇 년은 참았고 그 다음 몇 년은 견뎠고, 또 그 다음 몇 년은 바깥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느라 그렇게 지나갔다. 보상은 만족하지 못했지만 그리 나쁘지 않았던 셈이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었다.

내가 아내의 이메일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은, 바로 그날이었다. 테러 대비 훈련으로 반나절이나 일찍 집에 들어온 날이었다. 아내는 제니퍼를 픽업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컴퓨터는 켜져 있었고 대기화면에 아내와 나, 그리고 제니퍼와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웃고 있었다. 몇 개월 전에 내가 올려놓은 것이었다. 마우스를 움직이자 아내가 보고 있던 이메일이 모니터에 떴다.

보낸 파일이 왜 안 열린다는 거야. 압축파일을 열려면 우선 알집을 다운로드 해서 시행해야 해. 아내는 받은 파일을 열지 못했는지, 상대는 그것에 대한 시행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마지막의 한 줄의 야릇한 내용이 눈에 띄었다. 금방 이해가 되지 않아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 보았다.

압축파일과 알집은 받기된 나의 그것과 달콤한 너의 그것인 셈이지.

때마침 들어오는 아내의 차 소리에, 서둘러 방을 나왔다. 마치 나의 위장(偽裝)이 들켜버린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내는 외가 쪽의 친지 소개로 처음 만났다. 아내는 당시 대학 졸업반이었다. 나는 막 대학을 졸업하고 이 회사에 취직이 확정된 직후였다. 한 달 동안의 여유가 내게 주어졌다. 카스트라토가 된 지, 십사오 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나가게 되었다. 사실 난, 막 잠에서 깨어나려는 동구라와 쪽을 여행하고 싶었지만 엄마는 든든하게 자란 작

은아들을 친척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했다.

— 한국말 참 잘하시네요.

아내가 내게 붙인 첫 마디였다. 나는 단지, 안녕하세요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했을 뿐이었다. 초등학교 삼학년 때 미국 건너가서 처음 귀국했다고 하니까, 버터 냄새라도 물씬 풍길 것이라고 지레 짐작을 했었던 모양이었다. 차라리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다면 나의 발음이나 행동이 서툴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전 처음 보는 강남의 변화한 거리의 풍경과 아내와 내가 앉아 있는 카페가 웬지 낯설지 않았다. 내 눈은 화려한 도시의 부조화를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다. 통유리로 스토아 전면이 흰한 세븐 일레븐 스토아와 골목 옆으로 숨어 길가에 이것저것 내놓은 너저분한 식품점, 고급스런 맥도널드 스토아 옆에 호떡을 굽는 리어카, 대리석으로 벽면을 화려하게 치장을 한 패션회사 건물 앞을 지나는 허름한 차림의 등 굽은 노인, 그 간격이 야릇하게 서글픈 정감으로 되살아나며 오히려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있었다.

— 거버먼트 일을 해요…… 음…… 공무원?

무슨 일을 하느냐는 아내의 질문에, 내 말이 맞는지 아내에게 다시 확인하였다. 그러니까 아내와 나의 대화는 그런 작은 장애를 사이에 두고 이어졌다. 그런데 아내는 그런 사실 자체를 아주 즐기거나 맘에 들어 하는 것 같았다. 무언가 자꾸 파내어도 재미있는 것이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서로가 갖음직했다. 나와 아내가 결혼을 결심한 것도 문화적 차이의 겹에서 만들어 내는 적당한 너그러움이 한 몫을 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한국에서 아내를 맞아들이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나는 한국인 친구를 갖지 않았고 여자친구도 백인만

을 고집했다. 한국음식마저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동안 입에 대지 않았었다. 엄마도 나를 위한 식단을 따로 준비해주었고 식구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음식도 아이덴티티에 대한 고민의 범주 안에 집어넣은 것은, 어쩌면 일종의 오기 같은 것이었다. 피부 색깔을 바꾸고 코를 높일 수 없는 만큼 한국음식은 내게 혐오스러운 존재였다.

대학에 들어가서야 그런 의문을 나름대로 풀어낼 수가 있었다. 아니, 회귀의 본능으로 제풀에 스러졌다고 할 수도 있었다. 갑자기 도수 맞지 않는 안경을 쓴 것처럼 세상을 보는 눈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졌다. 그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형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미국회사의 성실한 직원이 되었다. 그리고 금발의 미인을 애인으로 사귀었다.

그녀는 미국에 온 지 일 년 조금 넘는 남미 이민가정의 출신이었다. 금발에 까무잡잡한 피부, 눈동자에서 깊은 바다 색깔이 엿보이는 여자였다. 그녀의 더듬거리는 영어는 야릇하게 내가 잊으려고 꺾꺾 눌러 놓았던 것들을 하나씩 들춰내었다. 김치와 된장찌개의 맛과 고향의 개울과 뒷산의 추억, 그리고 잊힌 언어의 초라함과 아스라함을 함께 떠올리게 했다. 내가 그토록 명확하게 구분지어 놓고 싶었던 영역이, 그렇게 봄날에 얼음이 녹듯 나른해지고 모호해졌다.

나와 형은, 파리넬리와 리카르도 형제처럼 아망(我望)의 예정된 물락을 지켜보게 된 셈이었다. 카스트라토의 깃발을 들고 형은 광야로, 나는 바다로 나선지 십여 년 만이었다. 우리가 다시 만난 곳은 광야가 끝나있던 바다 끝자락이었다. 형의 얼굴은 상처 투성이었지만 미소의 조각이 잔잔하게 남아있었고 나는 그 반대였다. 형은 그제야 넓은 바다를 볼 수 있었고, 난 그제야 외로운 바다를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회귀의 본능으로 아내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을까.

퇴근 후, 집 근처의 인터넷 카페에 들었다. 몇 개의 번호를 대입해 보고 금방 알아낼 수 있었다. 아내의 이메일 비밀번호는 은행 구좌의 비밀번호와 같았다.

안녕하세요, 김미숙님. 받은 편지함에 0개의 읽지 않은 메일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는 순간 잠시 주춤했다. 내가 장난 메일을 잘못 본 것은 아니었을까. 지금은 쓰지 않는 아주 오래된 메일 박스가 아니었을까. 차라리 몇 개의 숫자가 보였다면 덜 불안했을지도 모른다. '0개의 읽지 않은'이라는 문구는 무한대의 숫자를 내포하고 있는 불길한 블랙홀 같았다. 아내는 빠짐없이 메일 체크를 하고 있고 매일 상대와 채팅으로 소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장의 박동이 마우스를 잡은 오른손의 검지에게까지 전해졌다.

아내의 메일 박스는 말끔히 청소가 되어있었다. 몇십 개의 스팸 메일만이 눈에 띄었다. 이메일 휴지통도 깨끗했다. 내가 엿보았다는 것을 아내는 알았을까. 아니면, 외설적인 상대의 농담에 중단 선언이라도 한 것은 아닐까. 마치 낯선 곳에서 이방인의 야릇한 풍습을 맞닥뜨린 것처럼 당혹스러웠다. 한국의 부부는 서로간의 사생활의 영역이 어디까지 좁인지. 부부가 상대의 부정을 서로 감지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배신감과 의혹, 분노와 안도의 미로를 헤매는 감정의 초라함에 더욱 깊은 자괴와 증오가 끓어올랐다.

가끔씩 동료들끼리 자신의 고장에 대한 얘기를 하곤 한다. 노랑머리는 오클라호마 출신이고 안경 낀 똥보는 코네티컷이 고향이다. 그들에게 나의 고향은 철원이 아니다. 한국이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

은 전부 나의 고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내가 모르는 것을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난 실상 한국을 잘 모른다. 어렴풋이 느낌과 정으로만 아스라이 소통하는 것이다.

몇 번 한국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지만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일정이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쁘게 살피다가 돌아오곤 했다. 가장 오래 머물렀던 것이 아내를 소개받던 그 해의 한 달이었다. 그때처럼 내 생애에 설레던 적이 있었던가. 아내를 만났고 친척을 만났고 이별했던 것들을 찬찬히 돌아볼 수 있었다. 어설픈 이별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다시 만나서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땅을 밟는 순간 나의 묘비를 붙들고 통곡이라도 할 줄 알았다. 그러나 모래바람은 내 안에서 잠시 소용돌이치다가 이내 멈추었다. 대지는 축축했고 현란했다. 마치 잠시 눈을 감았다 뜬 것처럼 세월이 몽텅 잘라져 나가 있었다. 공항이나 택시, 상가 또는 은행에서 일하던 아줌마 아저씨들은 어디론지 전부 사라져 버리고 없었다. 그곳에는 나와 동년배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동년배의 외사촌형은 나와 어디든 같이 가고 싶어 했다. 부모님들이 섭섭지 않은 대접을 부탁했는지도 모르지만, 그와 나는 서로가 알고 싶은 것이 많았다. 서로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확인하고픈 야릇한 호기심 같은 것이었다. 이를테면, 김치를 먹고 자란 놈의 물건이 더 큰지, 햄버거를 먹고 자란 놈이 더 굵은지, 따위를 비교해 보고 싶은 것이었다.

— 야. 근데, 너 금발이랑 해 봤냐.

나이트클럽에서 맥주를 몇 잔 들이킨 외사촌형이 물었다. 처음엔 그의 질문을 금방 이해할 수 없었다. 무엇을 해 보았다는 것인지. 공부, 연애, 사랑, 아니면 섹스? 한국사람들의 대다수의 공통된 관점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무엇을 해서, 어떻게 노

력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사랑하다가 같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따위는 부수적인 이해를 돕는데 사용되었다. 돈을 엄청 벌었다는 사실과, 누구랑 결혼을 하였다는 결과가 가장 중요했다.

미국의 사고방식과는 정반대였다. 미국사람들은, 어떻게 만났니?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면, 한국사람들은 외사촌형처럼 마지막 단계를 먼저 묻는 것이다. 물론, 나 자신도 그와 며칠간 어울리며 다니다 보니 나중에는 그의 질문과 의도를 단박에 알아듣게 되었다. 마치 잊혀진 수학 공식이 하나하나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 응. 몇 번.

오호 몇 번씩이나. 외사촌형의 눈이 부러움 섞인 호기심으로 가득 차올랐다. 웨이터와 함께 두 명의 여자가 우리의 테이블로 안내되었다. 허벅지가 흰히 드러난 짧은 치마를 입은 늘씬한 이십대 초반의 여자들이었다. 시쳇말로 부킹이 이뤄진 셈이었다. 조명 탓인지 여자들이 보통 미인이 아니었다. 술도 잘 마셨고 춤도 그에 못지않았다. 머리가 흔들릴 만큼 찢어지는 음악 소리와 내부 전체를 무대처럼 환란한 조명이 휘감았다. 말을 해도 들리지 않으니 서로의 몸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나이트클럽에서 나올 때에는 마치 연인처럼 서로 엉겨 붙어 있었다. 그리고 스스럼없이 택시를 타고 같이 호텔로 갔다.

— 아이, 하지 마.

안으려는 나의 손길을 슬며시 뿌리치며 그녀가 말했다. 엉거주춤 내가 떨어져 앉자 그녀는 화장실로 가서 샤워를 했다.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의 자존심이 추락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잠시 후에 그녀는 브래지어와 팬티 차림으로 나와서 침대에 엎드려 누웠다. 그녀의 잘록한 허리와 검은 레이스 팬티가 섹시해 보였다.

그녀의 말과 행동의 차이에 대한 판단이 당혹스러웠다. 하지 말라는 말과, NO라는 단어에 서로 간 영역의 반경 또한 금방 셈이 서질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거부의 뜻을 내게 분명히 밝혔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잘못하다가는 강간범으로 잡혀 한국의 감옥에서 젊음을 보내야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비록 첫 만남이었지만 아내에 대한 약간의 죄의식 같은 것도 없지 않았다.

그일 이후로 외사촌형의 나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다. 보통의 한국놈이랑 다르다는 얘기였다. 좋게 표현하면 이성과 자제력을 겸비한 잘 자란 엄마의 둘째아들이었고, 솔직한 표현은 머리가 얼음장같이 차가운 어쩔 수 없는 미국놈이라는 것이었다. 외사촌형과의 유흥가 순례는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때의 기억이 한국에 대한 야릇한 아쉬움으로 남았다. 요염한 자세로 침대에 널브러져 있던 야한 팬티의 그 여자가 가끔씩 생각났다. 내가 이별하며 남기고 왔던 것들의 기억과 아쉬움이 범벅되어 그녀의 형상으로 떠오르곤 했었다. 그것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체득케 된 일종의 생활양식이나 경험에서 기인된 점도 없지 않았다. 이를테면, 급박하고 막중한 일들로 여겨졌던 것들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실상 먼지처럼 아주 미미하게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였다.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의 차이는 깊은 완곡함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체득케 된 것도 한 가지 요소라 할 수 있었다. 미국사회에서 정확한 의사표현은 상당히 중요하다. 다인종과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섞여있으니 필요불가결한 일일 것이다. 그 사회에서 자신의 문화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NO면 NO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람들의 언어는 여운의 뒷맛을 길게 남기며 미련을 갖게 한다는 점이였다. 그러니까 그녀는 내게 수용의 완곡한 표현을 했었고, 나는 그것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

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에 대한 아쉬운 환상은 위장된 군사기지의 모니터에서, 혹은 아내의 무표정한 일상에서 문득 엿보이기도 하였다. 건조한 아내와의 섹스에서 그녀의 쪽 뺨은 하얀 허벅지의 기억을 되살려보는 것도 양심의 가책으로 남지 않았다. 오히려 언젠가는 그녀를 한번 찾아보아야겠다는 막연한 망상을 하곤 했다. 그렇다고 그녀의 이름이나 연락처, 소재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막연히, 한국에 가면 그녀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뿐이었다.

아내도 심각한 충돌의 와중에 해소의 상대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렇듯한 명분으로 나를 이해시키려 해보았다. 하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아내의 표정과 행동에서 배신감은 커져가고 있었다. 퇴근하자마자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의 메일을 체크해 보았지만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회사에서 낮에 확인을 할 수 없으니 아내가 확인 즉시 메일을 지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다고 회사를 결근하고 인터넷 카페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도 없었다. 교묘하고도 야비한 행태의 꼬리를 잡으려고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회사에 일주일 휴가원을 냈다.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서 나왔다. 아내는 바닐라향의 커피가 담긴 보온병을 잊지 않았다. 곧장 인터넷 카페로 출근을 했다. 갖고 온 노트북을 인터넷에 접속하고 아내의 이메일에 도착 알람을 설치했다. 야수의 눈이 되어 뒷에 걸릴 먹이를 주시하고 있었다. 하루의 시간은 길고도 길었다. 엘에이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차로 달려도 남는 시간이었다. 답답하고 지루한 시간을 인터넷 게임이나 웹 서핑으로 보냈다.

가끔씩 울리는 알람에 소스라치게 놀라 열어보면, 번번이 스팸메

일이었다. 그렇게 하루가 갔고 또 하루가 지나갔다. 내가 혹시 잘 못 본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다. 아니면 정리를 했거나 다른 이메일을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도 들었다. 또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조강을 나가는 나의 운동화를 챙겨주었고 말없이 저녁을 준비했다.

휴가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이 되었다. 점심을 햄버거로 때우고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는데 알람이 울렸다. 보통의 알람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다. 마치 기름이 잘 칠해진 리벌버의 방아쇠를 가슴을 향해 당기는 소리처럼 들렸다. 아내의 상대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리벌버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데도 계속 총소리가 났다.

— 도대체 웬일이야. 어디 아픈 것 아냐. 아니면 내가 잘못된 것 있어? 걱정이 돼서 죽을 것만 같아. 집에 당신이 없던 동안 난리가 났었어. 붉은 대추차가 우리 애들 다 테워 죽이려고 하는 것을 사력을 다해서 물리쳤단 말이야. 아무튼 연락 빨리 줘. 나 미칠 것만 같아?

읽고 또 읽어 보았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았다. 나중해야 의미를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아내는 상대와 사이버의 부부로 지내는 사이였다. 아내의 아이디로 사이월드에서 그들의 집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다. 거기엔 아내와 상대가 주고받았던 수많은 밀어들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었다.

남편 잃을 것, 잃어서는 안 되는 것 구분하지 않을 거야. 이제 당신을 위해서 다 버릴 거야. 당신을 위해서 더 많이 비워 놓을 거야. 사랑해.

아내 항상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당신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언제나 재미있는 이야기와,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곳을 빠짐없이 나를 데려가 주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참, 내가 보낸 바닐

라향의 커피를 아직 못 받았나요?

아내는 사이버의 세계에서 바닐라 향의 커피를 들고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커피 잔에서 오르는 김과 은은한 바닐라 향기를 맡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AOK의 계기판에 적색등이 깜빡이며 경보음을 내었다. 사이버와 현실, 아내와 나, 그리고 나와 또 다른 남편, 아내와 그 남자는 서로에게 위장된 관계였다. 어쩌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런 연관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루써언 밸리

한만선

뱀 한 마리가 그 푸르스름한 몸통을 번들거리며 내 앞을 가로질러 달아난다. 내 키보다는 약간 짧다. 여간 큰 놈이 아니다. 그놈이 좌우로 몸을 움직일 때마다 비늘이 햇빛에 번쩍거린다.

왜 그럴까. 난 뱀만 보면 적개심이 솟구친다. 나는 긴장한다. 마침 들고 있던 뿔이를 고쳐잡고 언제라도 내려 찍을 자세를 취하면서 그놈의 뒤를 따라간다.

그놈은 내가 바짝 따라붙으면 빨리 달리고 내가 천천히 따라붙으면 천천히 달린다. 아니다. 사실은 그놈이 천천히 가면 나도 천천히 가고 그놈이 빨리 내뺄면 나도 빨리 따라붙는다. 뿔이를 잘못 내려찍



1984년 미주 한국일보 문예공모 단편소설 「아버지」 입상. 1987년 해외 문예지 《올림》 단편소설 「핏줄」 당선. 2005년 단편집 『악인의 부활』 출간. 현재 미주한국소설가협회 회원.

었다간 그놈이 갑자기 돌아서서 나를 공격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감히 쟁이질을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놈을 그냥 살려 보낼 수는 없다 싶어 그저 아주 위협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따라 붙이고만 있다.

거의 일직선으로 달아나던 그놈이 마침내 철망울타리를 넘어서더니 갑자기 달리기를 멈추고 근방의 떨기나무 위에 기어오른다. 떨기나무에 몸을 감고서는 머리를 내 쪽으로 내밀더니 물끄러미 나를 쳐다본다. 썩썩하다. 그놈은 내가 울타리를 넘어올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나는 그놈을 오늘 처음 보았지만 그놈은 나를 평소부터 보아 왔는지 모른다. 나의 일상생활태도, 습관, 성질, 가족관계, 대인관계, 뭐 이런 것들을 죄다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 집 주변의 모든 동물들은 내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꿰뚫어 알고 있다. 나의 출퇴근 시간,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일어나서 매일 한결같이 해야만 하는 일, 이런 것들 말이다. 집 처마 끝에 등지를 틀고 사는 참새들은 내가 없는 날엔 바로 창문 옆에까지 와서 똥을 싸면서 논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주인 없는 잡종개들은 내가 집을 비운 날을 용케도 알아내고 철망 밑을 파고 들어와 설랑 쓰레기통을 물어뜯어 난장판을 만든다. 어쩌다 뜻밖에 나와 마주치는 날이면 입에 거품을 물고 혼이 빠져서 도망친다. 요즘들은 이 집안의 실력자가 누군지, 힘을 쓰는 자가 누군지도 안다. 나를 보면 무조건 죽어라고 도망치는 잡종개들도 내 마누라와 만나면 본 체도 않는다. 마누라가 고향을 지르거나 돌멩이라도 던지면 멸똥이 쳐다볼 뿐 별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어떤 때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놀고 있네. 힘도 없는 것이……’ 아마 이러나 보다. 새벽 세 시면 하루도 빼 놓지 않고 우리 집 뒤걸을 지나가는 가이요테 떼들은 내가 외박을 하는 날엔 그냥 지나치질 않고 릴리와 맥스, 우리의 용맹스런

진돗개들과 한바탕 실랑이를 벌인다.

맥스는 마을의 왕초다. 어떤 종류, 어떤 크기에 관계 없이 모든 개들은 그에게 복종한다. 그는 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주 새로운 도전자들과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운다. 아침에 그를 보면 온몸에 피가 묻어 있다. 자신은 상처가 없는 것을 보면 그 피는 다른 개의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가이요테의 것일 수도 있다.

암컷, 릴리는 정말로 못말리는 비겁자다. 맥스가 싸울 때 그는 같이 싸우거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우려 하지 않는다. 멀찌감치 앉아서 관전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집으로 들어와 버린다. 두 놈이 다 밖에 나갔었는데 릴리만 먼저 들어오는 날엔 느즈막히 으레 맥스가 피투성이가 되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마련이다. 같이 싸워 줄 필요도 없고 또 별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은 사실이었으나 릴리의 비겁한 행동은 참으로 보아주기 힘들다.

한번은 우리집 펜스 밖으로 가이요테 두 마리가 장난을 치면서 지나가고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멀찌감치 몸을 숨기고 그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숨을 죽이고 있을 릴리가 그날따라 가이요테가 있는 쪽으로 뚱다 달려가더니 온갖 위협적이 자세를 다 취하면서 금세 잡아 먹을 듯이 으르릉거린다. 웬일인가 하고 보았더니 게이트 문은 굳게 잠겨 있고 펜스는 절대로 뛰어 넘을 수 없을 만치 높았으며 뒤에는 주인인 나와 그리고 그의 보이프렌드인 맥스가 태산 같은 무게로 앉아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길 가다가 제보다 덩치가 큰 낯선 개를 만나면 옆에 아무도 없을 경우, 으레 발랑 나자빠져서 항복을 표하곤 하던 릴리. 간사하기가 이를 데 없다. 진돗개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불임수술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참는다.

LA에서 라스베이거스로 가는 15번 프리웨이로 한참 동안 차를 몰고 가노라면 어느 한 곳에 빅토빌이란 도시를 만나게 된다. 거기서 내려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애플밸리가 나오고 거기를 지나면 인구 5천의 루썬엔 밸리라는 조그만 마을이 하나 나타난다.

이 마을은 거대한 모하비 사막의 변두리답게 땅이 모래흙으로 되어 있다. 식물이라고는 질서 없이 아무렇게나 나 있는 떨기나무와 며칠을 굶은 거지꼴을 하고 듅성듅성 엉겨주춤 서 있는 초수아 나무가 고작이다. 흡사 달나라 표면을 연상케 하는 풀 한포기 없는 산은 누우런 색깔의 죽은 돌들로 꾸며져 있다. 별 생각 없이 지나치듯 보면 간혹 영화에서 나옴직한, 수만 년 후에, 그러니까 지구가 쫄당 망하여 생물이라곤 개미새끼 하나도 찾아 볼 수 없이 완전히 황폐해버린 땅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 황막한 들판에 띄엄띄엄 집들이 있다. 거의가 조그만 오두막들이다. 저런 곳에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다. 저런 곳에서 무슨 할일이 있으며 무슨 먹을 게 있을까 싶다. 저런 데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말로 참으로 불쌍하다 싶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었던 내가 지금 그런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해도 신기하다. 웃긴다.

우리 집에서 한 블록 건넌 곳에 장기수가 살고 있다. 그는 나와 논산 훈련소 감방 동기다. 그러니까 수십 년 전, 같은 시기에 입대를 한 우리는 거기서 집총을 거부하다가 영창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우리가 속한 기독교 교단은 집총훈련을 거부한다. 교리에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뭐랄까, 전통이랄까, 깡따구랄까. 뭐, 그런 것이다. 교단의 높은 분들이 꼭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은근슬쩍 암시하는 것이 강요하는 것 이상이다.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입대는 해야 하지만 살인무기인 총을 쥐는 것은 종교적 양심이 허락지 않는다, 뭐 이런 논리다. 내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입대한다는 사실은 살인교육을 위함이고 집총거부는 눈감고 야옹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지만 어찌랴. 모든 친구들이, 모든 선배들이 줄줄이 집총을 거부해서 감옥으로 들어가는데 나 혼자만 빠지면 나는 배신자가 된다.

교단의 청년 담당 책임자는 입대를 앞둔 우리들에게 몇 가지 준수 사항을 하달하였다. 집총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는 반드시 '개인적인 종교적 양심'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할 것이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에는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처럼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며…… '개인적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무슨 문제가 생길지라도 교단전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게 하지 못할 것이며 '예수님처럼 침묵'하라고 시킴으로써 기초가 없는 이론을 일시 뺄줄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덕분에 우리는 마른 명태처럼 많이도 얻어 터졌다. 병신된 사람이란 돌이 아니다. 이삼 년씩 육군형무소에서 복역을 하고 별을 하나씩 달고 나왔다. 물론 나는 아니다.

논산 훈련소 영창에서 처음으로 만난 장기수와 나는 만나기가 무섭게 곧 헤어졌다. 신앙심이 깊고 강한, 그리고 몹시 단순하고 순진한 마음씨를 가진 장기수는 종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 감옥을 택해 떠났고, 나는 나대로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애초에 세웠던 뜻을 버리고 훈련소로 원대복귀의 길을 택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유독 총만 들지 않겠다고 고집한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우리 둘이 갇혀 있던 영창은 언제나 문을 채우지 않고 있었다. 연대장의 특별배려로 언제라도 마음이 바뀌면 즉시 소속부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두고 있었다. 장기수가 깊이 잠들기를 기다려 가만히 문을 열고 영창을 떠날 때의 내 심정은 찢어지고 또 찢어졌었다. 교리를 떠나서, 종교적 양심따위를 떠나서 아, 나는 친구를 배신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온몸과 마음이 마구 뭉개어졌다. 어려움을 함께 하지 않고서, 고통을 함께 하지 않고서 나 혼자만의 안위를 위해 그곳을 도망쳐 나오다니. 잠에서 깨어 내가 도망 친 것을 안 그는 얼마나 분개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낙심했을까. 이것은 인간이 할일이 아니다. 개만도 못한 나. 쥐새끼만도 못한 나.

그날 나는 정신을 못차리고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도망병으로 취급되어 곤욕을 치렀다. 그리고 약간 화가 나신 신은 집총을 거부 못한 나를 소총부대를 거치고 기관총 교육을 받게 했으며 드디어는 제대할 때까지 155밀리 대포부대에까지 배속시킴으로써 온갖 충을 싣컷 쥐고 살도록 조치하셨다.

제대 후 나는 그를 찾으려고 여러 곳에 알아 보았으나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부산 육군 형무소에서 복역하고 불명예제대를 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전부였는데 뜻밖에도 수십 년이 지나 칠십을 내다 보는 인생의 마지막 기간에 멀고도 먼 미국땅에서 마치 논산 훈련소 영창에서 우연히 만나듯 우리는 다시 만난 것이다.

루씨언 벨리에 저녁이 오면 하늘에는 그림같이 아름다운 별나라가 펼쳐진다. 교과서에 나온 모든 별들과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모든 별들이 빠짐없이 나타난다. 은하수와 별뿔별도 나타난다. 별은 밝다 못해 멀정게 단 숯불처럼 이글거렸고 달은 도시에서 보는 것보다 두배나 밝고 또 둥그런 것이 엄청 크게 느껴진다.

나는 하늘 가득히 찬란하게 빛나는 별들을 보고 우주의 신비에 젖는다. 젖어빠야 별 불일 없는 나라는 존재. 세상의 헛된 욕망에 사로

잡혀서 정신없이 싸돌아다니는 불쌍한 인간.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할
키고 팔짝거리고 졸랑거리고…… 무한한 공간 속의 나의 존재란, 내
가 아무리 잘나 봐야 조금도 잘나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는 영점 영
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분의 일도 안 된다.

내가 아무리 큰 부자가 되어 봐야 썩은 한푼 없는 거지와와의 차이란
영점 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분의 일도 안 된다. 우주의 영원한
시간속에서 내가 존재하면서 가질 수 있는 시간이란 영 그 자체이다.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산다고 한다. 영원함이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의 무한성을 말함이다. 나는 여기에 하나의 의문을 늘 갖고 있다. 끝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시작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하고 말이다. 지금부터, 혹은 죽은 뒤부터 영원히 산다는 것은 참영원이 아니다. 시작부터 영원성을 지니고 있어야 참영원이다. 그러니까 아예 시작이란 것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시작이 있었지 않는냐 말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밤하늘의 별을 보고 문득 이 부분의 진리를 깨달았다. 마치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에서 별을 보고 문득 대진리를 깨달았 듯이…… 그것이 뭐고 하니 우주에는 지구에서와 같은 그런 제한된 시간이 없다는 사실이다. 과거와 미래가 따로 없는 초월된 시간, 과거와 미래가 함께 하는 그런 시간, 소위 말하는 사차원의 세계 말이다. 왜, 인인슈타인도 말하지 않았던가. 인간이 광속으로 우주를 달리면 시간은 제로가 되고 만약에 광속보다 더 빨리 달리면 시간은 마이너스가 된다고 말이다. 말하자면 사람이 지구를 떠나서 광속으로 지구시간으로 백만 년을 달려 다시 지구로 돌아온 경우, 그 사람의 나이는 지구를 떠날 때의 그 나이인데 지구는 이미 백만 년이나 지나 있게 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만약 그 사람이 광속보다 더 빨리 우주를 떠다니다 지구로 돌아왔을 경우는 어찌 되겠는가.

그렇다. 지구상의 시간은 미래로만 흘러갈 뿐이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러나 우주의 시간은 과거도 미래도 조금도 다름이 없이 아무곳에라도 갈 수 있다. 우주의 시간은 흐르는 것이라기보다 정지돼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게 옳겠다. 아니, 시간이란 것은 아예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영혼에는 나이가 없다고 말하지 않는가. 그 말이 그말이다.

신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시간과 공간의 울타리에 묶어 두신 것임에 틀림이 없다. 당신께선 전지전능의 절대자이시요 인간적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영원성은 시간의 초월에 그 근거가 있다. 시간에 얽매인 존재는 없는 것과 같은 존재다. 아. 정말 미치겠다. 미치겠다.

나는 이런 대진리를 깨닫고 흥분하여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좀 뒤에 어떤 책을 읽다가 내가 발견했던 이 대진리가 더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곤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는 것이 고작 일반적인 상식, 그것도 이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그리고 별로 대수로운 것이 아닌 학설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웃음이 나왔다. 이런 쟁장.

나와 아내는 뒤뜰에다 지난 삼사 년 동안에 매년 백여 그루씩 합계 500여 그루의 대추나무를 심었다. 내가 구덩이를 파고 아내가 물을 뿌렸다. 나무를 심을 때는 정성을 다하였다. 아내가 나무를 잡아 구덩이에 넣으면 나는 뿌리를 잘 펴서 흙을 덮었다. 흙이 덮이면 발로 잘 밟은 뒤 물을 흠뻑 주었다. 지하수가 얼마나 풍부한지 끝없이 퍼올려도 계속하여 나왔다. 첫해는 거름을 주어서는 안 된다. 물만 주라 하였다. 그래서 시간에 맞게 물만 주었다. 나무들은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일제히 잎을 내고 일제히 꽃을 피웠다.

나무에 물이 오르자 토끼 떼가 대들어서 대추나무의 가죽을 갉아 먹는다. 토끼들은 바로 옆에 무서운 진돗개들이 있는데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개에게 쫓기면 빨리도 달아난다. 철제 그물 울타리의 그 좁은 구멍을 논스톱으로 통과한다. 대가리만 들어가면 가슴과 엉덩이는 문제가 안 된다. 토끼가 뭔가에 부딪쳐서 스스로 기절하여 자빠지기 전에는 진돗개가 그들을 따라잡기는 매우 어렵다.

토끼가 나무 등치를 뺨 돌려다 갉아 먹으면 나무는 죽는다. 나는 물이 나무등치의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올라가는 줄 알아왔는데 그게 아니었다. 물은 나무의 껍데기를 통하여 올라가고 있다. 그러기에 나무 껍질이 360도로 다 갉아 먹히면 수로가 끊겨서 죽고 만다.

이렇게 하여 죽는 나무가 적지 않다. 죽은 나무는 미련 없이 뽑아내고 새나무를 심는다. 그리곤 드디어 모든 나무에 쇠그물을 돌린다. 토끼는 쇠그물을 딛고 올라서서 그 위의 가죽을 갉는다. 나는 쇠그물의 길이를 높인다. 토끼는 나무를 밀어붙여서 쓰러뜨린다. 나는 쇠기둥을 박아서 나무를 고정시킨다.

나무를 죽이는 것은 토끼뿐이 아니다. 두더쥐가 있다. 그놈은 땅 밑을 헤매다가 나무뿌리가 걸리면 그 자리에서 싹둑 잘라먹는다. 뿌리가 잘린 나무는 목이 잘린 동물과 같다. 여지없이 쓰러지고 만다. 미련 없이 확실하게 생명을 끝낸다.

두더쥐를 없애는 것은 좀 어렵다. 약을 뿌리기도 하고 쥐틀도 놓지만 잘 걸려 들지 않는다. 고약한 냄새를 풍겨서 그놈들을 쫓아낼 궁리도 해 본다. 그놈들이 싫어하는 것은 양젓물 냄새다. 그놈들의 구멍에 양젓물을 뿌린다. 그놈들은 양젓물 냄새를 싫어하여 터전을 옮기긴 하지만 그리 멀리 가질 않는다. 우리는 그놈들이 옮겨 간 바로 그곳에다 양젓물을 뿌린다. 그러나 그놈들은 다시 집터를 옮기지만 그리 멀리 가는 가질 않는다. 5에이커나 되는 넓은 밭에 온통 다 양젓물

을 뿌릴 수는 없다. 드디어 양젓물 뿌리기는 중단된다.

때로는 나무 아래에 설치된 호오스의 물꼭지가 모래에 막혀 물이 제대로 흘러 들지 못할 때가 있다. 때로는 거센 바람에 가지가 꺾이거나 혹은 나무 등치가 송두리째 부러져 나가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그 나무는 죽는다. 나무가 죽으면 다시 새나무를 심는다.

드디어 열매가 열리고 익는다. 열매가 익으면 주위에 향기가 어린다. 그 향기를 제일 먼저 알아내고 손을 쓰는 놈은 새다. 그놈들은 꽃대추를 쪼지 않는다. 빠알강게 익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경솔히 입질을 하지 않는다. 향기를 풍겨야 한다. 향기를 풍기는 열매를 쪼기 시작한다.

대추나무는 꽃이 한꺼번에 피지만 열매는 그렇게 한꺼번에 익지 않는다. 큰 놈부터 차례차례 익는다. 새들도 차례차례 쪼아댄다. 잘 익은 대추가 너무나 많으므로 하나씩 통째로 먹기는 마음이 급하다. 그래서 그들은 한 열매에 한번씩 입질을 한다. 그들의 주둥이 자국이 난 대추는 팔기는커녕 나도 안 먹는다. 그냥 내버릴 수밖에 없다.

나무가 자랄 때는 토끼가 그렇게 애를 먹이더니 열매가 달리니 이번에는 새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세상 일이 뭐 하나 제대로 순조로이 되는 것이 없다. 처음에는 소일 삼아 시작한 대추농사가 막상 손을 대고 보니 이건 장난이 아니다. 이 나이에 그냥 놀러나 다니면서 죽을 준비나 할 것이지 이게 무슨 개떡같은 고생이냐.

아침을 먹고 대추밭엘 나갔더니 참새 떼가 무슨 난리라도 난 듯 왁자지껄하게 떠들면서 일제히 하늘을 날아 오른다.

새야 새야. 고약한 새야. 너희는 왜 이리도 소란스러우냐.

너희의 천국에 강도라도 들었느냐. 무슨 괴물이라도 나타났느냐.

내가 뭐 못 올 데라도 왔느냐. 내가 뭐 너희의 원수라도 됐느냐.

누가 이 나무들을 심었었지 누가 구렁이를 파고 누가 거름을 주었

었지.

누가 물을 주고 누가 키웠지 누가 잡초를 뽑고 누가 땀을 흘렸지.

내가 아니냐. 내가 아니냐. 말이다.

헌데 너희는 지금 왜 이다지도 나를 몰라보고 마치 나를 마구 쫓아
댈 듯이 범석대냐.

내가 너희를 쫓았으면 쫓았지 어찌 너희가 나를 쫓려고 그러느냐.

너희들이 막 익기 시작하는 과일의 익은 곳만을 쫓아서 과일을 못
쓰게 만들어도 내가 언제 너희에게 화를 내더냐. 너희가 모든 과일에
죄 주둥이 자국을 내서 애써 키운 과일을 망가뜨려도 내가 취한 태도
는 고작 쫓쫓 혀만 몇 번 찼을 뿐이었다. 내가 길길이 뛰며 고향을 치
기라도 했다면 또 몰라. 내가 너희들을 쫓아내려고 총이라도 쏜 적이
있다면 또 몰라. 나는 약을 쳐서 너희를 독살시키려고 한 적도 없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놔서 너희를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적도 없
다.

내가 힘이 없어 그러질 않았겠나. 내가 바빠서 그러질 않았겠나.
그런 일을 당해도 썩 너희에게 이처럼 공자같이, 성 어거스틴같이,
페스타룻치같이, 마하트마 간디같이, 세종대왕같이 인자하게 대해주
는 나를 존경하고 우러러 경배하지는 못할 망정 마치 원수를 대하듯,
도둑이나 강도를 대하듯 하는 너희야말로 참으로 한심하구나. 논리
와 이치에 맞게 말을 하자면 도둑은 내가 아니고 너희다. 너희가 자
연의 혜택을 공유하지는 차원에서 내게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도움
을 요청해 왔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옛날 인디안들은 한 그루의 옥수수를 먹기 위해서 일곱 그루의 옥
수수를 심었다고 들었다. 그것을 아는 나이에 나는 너희에게 한엿
이 관대할 수 있었던 게다. 거기다가 나의 천성이 원체 공자같이 어
질고 욕심이 없으며 세상 물정에 밝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이 점을 알고 명심해야 한다.

허기야 너희가 나를 적대시하고 온갖 소동을 벌이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다. 본래 너희의 머리는 쿡알만해서 그 머리로 무슨 생각인들 제대로 하겠느냐. 너희가 아는 것은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것 뿐이잖느냐. 속된 말로 하자면 그저 아무거나 처먹고 똥이나 싸며 새끼나 만들고 하는 일 말이다. 인간들 중에도 이런 것들이 많지. 이보다 더 한심한 것들도 많고.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좀 심했나 하는 생각도 드는구나. 허기야.

“이런 쌍놈의 개새끼.”

요즘 나는 릴리 때문에 마음이 편하질 않다. 이것이 밤마다 호오스를 물어 뜯어 못쓰게 만들어 놓는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분통이 터진다. 물이 한강이다. 그걸 수리해 놓자면 돈도 돈이거니와 여간 성가신 것이 아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릴리의 짓이다. 나는 릴리가 호스를 물고 잡아당기면서 장난을 치고 있는 현장을 몇 번이나 보았다. 그때마다 ‘노오’하고 고함을 치면서 뛰어나가서 그놈을 발길질도 하고 회초리로 때리기도 했다. 릴리는 내가 왜 그러는지를 도무지 모르나 봤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맥스도 내가 왜 저렇게 미친 듯이 난리를 치고 있는지를 모르는 모양이다. 릴리가 내게 혼나고 있는 꼴을 보면 맥스는 심기가 매우 불편한 모양이다. 비록 개일지라도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눈을 내리깔면서 명암이 우중충해지는 그의 표정을 보면 다 안다.

나는 릴리를 교육시키기 위해 그를 말뚝에 묶어 놓는다. 그리고 그가 작살을 내 놓은 고무 호오스를 그의 입에 물리고 ‘노오, 노오.’ 하면서 회초리로 몇 대 갈긴다. 릴리는 죽는 시늉을 하면서 엄살을 피운다. 그가 내가 왜 이러는지를 모른다니 말도 안된다. 물끄러미 구

경을 하고 있는 맥스가 가슴 깊이 한숨을 쉰다. 그도 내가 왜 이러는 지를 모른다니 참으로 미칠 지경이다.

뒤에 들어서 안 바로는 이런 경우에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따로 있다. 고무 호오스에 약한 전류를 통하게 하고 그걸 개에게 물리면 질겁을 하고 다시는 호오스를 물지 않게 된다고 했다. 그걸 무슨 재주로 내가 알았겠나.

릴리는 드디어 나를 경계하기 시작한다.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그는 겁에 질린다. 내가 고무 호오스가 있는 곳으로 가서 눈으로 땅바닥을 훑기 시작하면 릴리는 멀찌감치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호오스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도 아무일이 없지만 호오스에 이상이 있으면 ‘이런 쌍놈의 개새끼’ 하는 소리가 들리고 나의 증오에 찬 눈빛이 릴리에게로 쏟아진다.

“이리 와. 쌍놈의 릴리.”

나는 고함을 친다. 언제부터인가 릴리는 오지 않는다. 그가 오지 않고 머리를 가웃둥 하면서 눈치를 본다. 나는 화가 나서 릴리에게로 걸어간다. 그는 내가 다가선 만치 물러선다. 내가 걸음을 빨리 하면 그도 고만한 거리를 유지시키며 물러선다.

“이리 오라니까. 이 새끼 좀 봐라”

맥스는 내가 부르면 죽는 일이 있어도 온다. 그런데 릴리는 아니다. 나는 엄청 화가 나서 몽둥이를 찾아 들고 릴리를 향해 뛰어간다. 릴리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를 피해 달아난다. 게이트가 열려 있으면 그쪽으로 간다. 그는 내 주행속도를 잘 알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다. 천천히 게이트를 통과해서 바깥으로 나가버린다. 그러곤 내가 화가 풀릴 때까지 그는 우리 사이에 있었던 적합지 못했던 사건을 까맣게 잊은 듯 천연스레 집으로 돌아온다. 문이 잠겼으면 다른 비밀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정 필요한 경우에는 펜스 밑 흠을 파고 기

어 들어온다.

주인과 개의 사이는 주종관계이다. 릴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주종관계의 파괴를 의미한다. 종이 주인의 말을 불순종하다니. 이걸 용납할 수 없는 큰 사건이다. 그런데도 내가 릴리의 무례를 없었던 일로 돌리고 번번이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피치 못할 이유가 있다.

릴리가 얻어터지면 맥스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난다. 거기까진 좋다. 허나 문제는 릴리가 옆에 없으면 맥스가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내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주어도 릴리가 옆에 없으면 맥스는 절대로 먹지 않는다. 맥스는 릴리를 지나치리 만치 신경 쓴다. 싸움이 벌어지면 옆에서 구경이라도 해주면 좀 좋아. 맥스가 물려서 죽든말든 언제나 안전지대를 향해 도망치기에 바쁜 릴리. 피임수술 까닭에 평생 발정 한번 못 하는 릴리. 고무 호오스 사건을 일으켜서 집안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드는 릴리. 이런 릴리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다. 허지만 어찌랴. 맥스를 위해서 나는 릴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비록 개일 망정 수컷이 훌륭하면 감히 암컷을 얹잡아 볼 수 없다. 짐승이 다 이런데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야.

“어이. 장기수 훈련병.”

지나가는 길에 내가 인사를 한다. 그는 팽이를 들고 잡초를 뽑다 말고 나를 본다. 나는 손을 흔든다. 그는 손으로 땀을 훔치며 잠시 일손을 멈춘다.

“이놈의 잡초들은 꼭 내 맘속에서 계속 자라나는 나쁜 마음들과 같은 말이야. 난 잡초한테 팽이질을 할 땐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죽어라, 이놈의 자존심아, 꺼져라, 이놈의 명예욕아. 끝나거라 세상 물

욕, 사라져라 속된 정욕.”

그는 행동 하나 말 한마디도 내게 감동을 안 줄 때가 없다.

나도 잡초를 뽑을 땐 곧잘 땀가를 중얼댄다. 그러나 내용은 장기수완 확실하게 다르다.

“죽어라, 이놈의 강 장로야. 꺼져라 쌍놈의 김 집사야.”

장기수는 이 마을에 맨 처음으로 대추나무 농장을 시작한 사람이다. 그는 이곳의 기후가 다른 과일보단 대추나무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알아내고 나를 비롯한 서너 명의 한국인들에게 대추나무 과수원을 권유했다. 대추농사는 특히 은퇴한 사람들에게겐 안성맞춤이다. 일이 그렇게 고되지 않고 시작하는 자금이 별로 많이 들지 않으며 수입은 꽤나 짭짤하기 때문이다.

보통 한국인 노인들은 수입을 숨기고 정부로부터 극빈자에게 주는 웰페어를 받는다. 수입금이 탄로날까 봐 은행거래를 줄이고 주로 현금거래를 일삼는다.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은 아들이나 딸의 이름으로 올리고 자기는 집도절도 없는 알거지로 분장한다. 그렇게 되면 의사를 만나도 공짜가 되고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해도 전부 공짜다. 몸이 찌푸둥하다 해서 마싸지를 받아도 공짜요 걸음걸이가 불편하다 하여 특수운동화도 공짜로 받는다. 법의 맹점을 잘 이용해서 돈을 버는 어떤 노인봉사단체의 배려로 간혹은 여행도 공짜로 가고 춤도 공짜로 춘다. 실은 서류상으로만 극빈자지 먹고 자고 노는 것은 상류계급이다.

“이건 정부의 돈을 도둑질하는 것이예요. 거짓말하는 것이구요. 이러구서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호소하는 것은 넌센스 중의 넌센스지요.”

장기수는 힘주어 말한다.

자식의 이름으로 된 호화주택에 살면서, 각종 고급차를 타고 다니

면서, 온갖 좋다는 음식을 빠짐없이 다 먹고 다니면서, 극빈자 대우를 받다니. 사람을 속이는 것은 더러운 짓이지만 정부를 속이는 것은 괜찮단 말인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안 돼도 정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괜찮단 말인지. 신은 속이는 자의 근본적인 마음씨를 보신다. 도둑질을 해야 도둑인가. 도둑할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바로 도둑이지. 간음을 해야 비로소 간음을 한 자인가. 간음할 마음을 갖고 있으면 간음자이지. 이런 못난 늙은이들 같으니라구. 그러고도 주님의 은혜가 어떻고 말세가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천당에 가면 어떻고 하다니. 예라이. 모두 지옥에나 떨어져 버려라.

장기수는 법적으로 극빈자의 자격을 충분히 가졌는데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담당자 앞에서 수입이 전혀 없다고 반드시 서약을 해야 하는데 어찌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영생을 포기한다면 모를까 이것은 안 될 일이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양심의 지시를 따라서 웰페어 사기나 메디칼 사기에서 벗어나야만 한다고 그는 부르짖는다. 세상이 아무리 썩어 빠져도 어딘가에는 항상 훌륭한 사람이 있는 법이다.

루써언 교회에는 서로 반목하는 두 파가 있다. 한 파는 장기수 장로를 중심으로 뭉친 무리이고 다른 한 파는 장기수 파가 아닌 부류가 뭉친 무리이다. 장기수 장로파는 목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파요, 다른 파는 목사를 못마땅하게 보는 장기수를 못마땅하게 보는 파다.

장기수파가 볼 때 목사는 영혼을 붙잡히 여기는 목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다. 마땅히 해야 할 방문도 않아서 신자들이 굶고 있는지 앓고 있는지도 모른다. 신자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행사위주요 성과위주다. 언제나 숫자 늘음만 하는 자다. 제 모가

지 널 일에만 열중하지 신자들의 노고나 희생은 생각도 않는다. 목사로서의 함량이 부족하고 또한 중량이 많이 부족하다.

요즘와선 목사가 골프에 미치더니 근무시간을 거의 골프장에서 보내고 있다. 점점 더 미치더니 이젠 별로 크지 않은 교회행사에는 자기는 참석도 않고 제 마누라를 보낸다. 골프에 더욱 미치다 보니 무슨 일이 있을 때 둘러대는 일이 생기더니 나중에는 거짓말도 서슴없이 해낸다. 목사가 진실성이 없게 되다니. 그렇잖아도 잘 믿기지 않는 천당 얘기나 구원, 영생 얘기가 더욱 믿기지 않게 된다.

목사는 뻔질나게 출장을 다닌다. 초청도 되게 많이 받는다. 뉴욕으로 시카고로 아틀란타로 캐나다로 안 가는 곳이 없다. 자기를 초청했던 교회의 목사는 반드시 초청을 받는다. 수많은 타지의 목사들이 초청을 받고 와서 며칠씩 묵고 간다. 묵으면서 라스베가스로 그랜드 캐년으로 목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구경을 다닌다.

목사는 설교가 신통치 않다. 준비 없이 하는 설교다.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다. 웃기지도 않고 울리지도 않는다. 깊이도 없고 넓이도 없다. 그의 설교를 듣는 것은 시간 낭비다. 자연히 신도들의 수효가 줄어든다.

그러므로 목사를 내보내야 한다. 이것이 장기수파의 주장이다.

그런데 목사는 자기가 내어보내어져야 할 이유에 대하여 동의하지 못한다. 나는 하루에 네 시간씩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한다. 나는 이 교회에 부임하여 그동안 해놓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초라하기 그지없던 교회를 이렇게 큰 교회로 이전시켰지. 모든 시설과 장비를 죄다 현대화했다. 숫자상으로 볼 때 신자들의 수효가 거의 두 배에 이르게 했고 교회재정도 얼마나 넉넉하게 잘 돌아가느냐.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의 위상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킨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호활동이나 봉사활동에는 언제나 우리 교회가 앞장을 서지 않았느

었나 보다.

지금은 릴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모른다. 나는 마음이 뒤집힐 대로 뒤집혀져버렸다. 릴리가 미워서 건딜 수 없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깟 고무호오스는 아무래도 좋다. 제가 어찌 한낱 동물인 주제에 감히 주인이 몹시 사랑하는 애완용 고양이를 겁도 없이 물어 제꼈냐 말이다.

나는 터지려는 분노를 누르고 방으로 달려가서 총을 들고 나온다. 릴리를 겨눈다. 릴리가 영문을 모르고 얼굴을 가웃둥 하고 나를 쳐다 본다. 저쪽에서는 맥스도 물끄러미 나를 쳐다본다. 우리 개들은 내가 총을 쏘는 것을 아직 본 적이 없다. 나도 아직은 총으로 동물을 겨누고 쏘 본 적이 없다. 이 마을에선 총을 쏘도 괜찮다. 미친 개가 대든 다거나 사나운 짐승이 울타리 안에 들어왔을 경우에 말이다. 그런데 자기가 키우는 개가 미웠을 때는 쏘도 되는지 모르겠다. 헌데 막상 총으로 릴리를 겨누고 보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진 해선 안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총 쏘는 것을 포기한다. 그러나 이놈을 그냥 뒤흔어는 안 된다. 반드시 징벌해야 한다. 한동안 생각에 잠겼던 나는 드디어 큰 결심을 한다. 나는 릴리를 끈에다 단단히 잡아매어 차에 싣는다.

이왕 결정한 일이니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 나는 차를 몰아 라스베가스 쪽으로 달린다. 바스토우를 지나고 베이커에 가까워진다. 한 시간 여 달리고 또 조금 더 달린다. 다른 개는 황야에 버리면 며칠이 못 가서 다른 짐승에게 잡아 먹히거나 주려 죽지만 진돗개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다. 진돗개는 들개로 변한다. 한 구역을 정해 놓고 거기서 동물세계의 왕초가 된다.

“왕초가 되어 잘 살거라.”

나는 릴리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온다. 네 아무리 영리해도 설마 집

으로 돌아오진 못하겠지. 나는 다른 길로 해서 집으로 돌아온다. 나는 나의 잔인함의 극치를 스스로 느낀다. 동물애호가라면 나는 당장 고발당할 것이다. 그래, 좋다. 좋다구.

나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액셀러레이터를 세게 밟는다.

낮엔 엄청나게 덥고 밤엔 견디기 어려울 만치 추운 달나라의 표면 같은 사막일지라도 어쩌다 꽃이 피면 반드시 벌이 날아오고 짐승이 죽어 썩으면 반드시 파리가 날아와 알을 낳는다. 나는 한때 옥수수를 키워 보았다. 한 백 그루쯤 됐다. 나는 그 백 그루의 옥수수에 비료를 주거나 살충제를 주지 않았다. 그저 두엄만 주었다. 그 백그루의 옥수수가 다 익었을 때 나는 깜짝 놀랄 일을 만났다. 그 백 그루의 옥수수 전부다 다 벌레 먹혀 있었기 때문이다. 구테기가 기어나왔다. 어떤 곤충의 애벌레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어떤 곤충이 어떤 시기에 옥수수애다가 알을 낳 것은 틀림이 없다. 어떤 곤충이 옥수수에 알을 낳 바로 그 시기에 우리는 살충제를 뿌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허기야 살충제는 화학약품이 아닌 것, 예컨대 식초 같은 것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글썄.

토끼가 가이요테에게 잡혀 죽으면 그 내장을 가이요테가 먹고 다음은 가마귀가 먹고 다음엔 개미 떼들이 새까맣게 대들어 가죽까지 다 먹어 치운다. 마지막으로 남은 털은 바람에 날려서 흔적이라곤 하나도 없다. 누가 빗자루를 들고 쓸지 않아도 자연은 모든 폐물을 스스로 말끔히 치운다. 사막은 언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고 천 년 전이나 만 년 전이나 다름이 없다.

릴리를 내다버린 다음날부터 맥스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다. 평소엔 미치게스리 좋아하던 깡통 음식을 쥐도 눈도 한번 안 보낸다.

음식뿐만 아니라 물도 먹지 않는다. 평소에 릴리를 끔직하게도 생각해 온 그다. 그가 다른 짐승과 죽음을 걸어놓고 싸울 때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 여차하면 도망칠 준비를 하곤 하던 릴리. 그가 포획한 토끼를 제가 먼저 맛을 보겠다고 귀찮게소리 보채던 릴리. 피임수술을 했기에 몇 년을 두고 기다려도 한번도 올라 탈 기회를 주지 못하던 릴리. 그런 아무데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릴리를 끝까지 사람 취급, 아니, 개취급을 해주는 맥스다. 어떤 위험에도 목숨을 걸고 릴리를 보호했고 릴리가 굶으면 같이 굶던 맥스다. 릴리가 주인에게 얻어터지면 마치 제가 얻어터지기라도 하는 듯 자리를 피하여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꺽꺽거리던 맥스. 주인과 함께 나간 릴리가 주인만 돌아온 채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으니 그 마음의 상심됨이 오죽하였으랴.

그렇게 단식을 하고 지내더니 드디어 큰 일이 벌어지고야 만다. 어느날 맥스는 집을 나가버린다. 릴리를 찾아 나선 모양이다. 도대체 릴리를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수백리 머나먼 곳에 떨어뜨려진 그를 무슨 재주로 찾아 내겠다는 것인가. 이놈이 환장을 해도 분수가 있지. 그렇게도 경우 없고 애만 먹이던 애물단지를 꼭 찾아 나서야 하겠다니 참말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다. 맥스는 집을 나갔다.

며칠이 지나도 맥스는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그는 릴리를 찾아 들판을 헤매다가 한밤중에 가이요테 떼의 습격을 받았을 게다. 굶어 허기진 몸으로 어찌 사나운 가이요테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 잡아 먹혔을 지도 모른다. 온몸이 가이요테의 이빨에 온통 다 찢겼을 게다. 온몸은 죄다 가이요테의 입으로 들어가고 머리만 땡그러니 남아서 들판에 뒹굴고 있을지 모른다.

나는 차를 타고 동네를 몇 바퀴 돌아본다. 혹시라도 맥스가 나타날

지 모른다. 시체라도 발견할지 모른다. 아니면 그의 대가리라도, 아니면 그가 들렀던 목테라도 발견할지 모른다. 나중엔 별판길 저 멀리까지 대충 돌아봐도 맥스의 흔적은 없다. 맥스는 죽은 모양이다. 릴리를 미워한 죄로 맥스를 잃었다. 요런 알미운 릴리. 릴리가 미운 생각에 부르르 가슴이 떨린다.

일부 교인들의 불만이 점점 커져간다. 몸이 아파서 몇 주일째 교회엘 못 나갔는데도 목사한테서 방문은커녕 전화 한번도 없었다고 불평하던 김 집사는 몸이 나은 후에도 교회엘 나오지 않는다. 박 집사는 요즘 와서 목사가 사람을 보아도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고 입이 부루통해 있다. 이 집사는 목사가 어떤 모임이나 심지어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넥타이를 매지 않고 평상복을 착용하거나 노동복을 착용한다고 눈에 불을 켜고 욕을 한다. 구 장로는 목사가 신자들이 뻘뻘하게 벌어서 바친 헌금을 소중하게 사용치 않고 아무데나 마구 써댄다고 걱정이 태산이다.

드디어 그들은 교회에 출석하기를 게을리한다. 헌금도 덜내고 교회일에 협력하기를 꺼린다. 그들은 그들 때문에 교회일이 잘 안 되기를, 그래서 목사가 골탕 먹기를 은근히 바란다.

헌데 그들의 바램은 실패한다. 목사를 따르는 신흥그룹이 갑자기 교회에 열성을 보인다. 목사를 따르고 보호하려고 너도 나도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들은 헌금을 뭉텅 뭉텅 많이 낸다. 목사를 청하여 자꾸 먹인다. 주말엔 함께 일박 이일의 여행도 떠난다. 목사는 그들과 공공연하게 골프도 치고 조기축구도 한다. 목사는 그들에게 영향력 있는 직책을 주고 그들로 열심히 교회를 도우게 한다. 그들은 목사가 설교를 하면 말끝마다 아멘 소리로 화답한다. 때론 할렐루야 하면서 고함도 지른다.

교회는 새로운 분위기에 휩싸이고 부흥하기 시작한다. 어느새인가 목사를 내보내어야겠다는 여론은 쭉욱 들어가고 교회는 새사람으로 불어난다. 교회가 잘돼 간다는 데에 문제될 것이 없다. 잘된 일이다. 목사가 나가지 않아도 교회가 더 잘된다는 데야, 목사가 골프를 치고 다니는데도 교회가 더 잘된다는 데야 어느 누가 감히 불평을 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아멘이다.

교인들이 이렇게들 새사람으로 거듭나니 목사도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는 금식기도를 한다 철야기도를 한다 하더니 정말로 믿기지 않을 만치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 옛날 같지 않게 그는 근무시간을 충실히 지킨다. 항상 신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항상 신자들과 접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에게 전화를 걸면 통화중이 아니면 틀림없이 바로 그가 나온다. 그는 틈이 나는 대로 신자들을 방문한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전혀 손을 대지 않던 다 죽어가던 교회의 잔디에 물을 주어 살린다. 아무데나 마구 흩어져 있던 교회의 비품들도 찾아서 제자리에 정리해 배치한다. 그는 모든 집회에 항상 제일 먼저 나와서 들어오는 신자들을 일일이 영접하고, 집회가 끝나면 신자들을 일일이 환송하기 위하여 제일 나중까지 남는다. 그의 얼굴은 루써언 벨리의 보름달처럼 밝고 따뜻해졌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표가 나게 달라졌다. 찬바람이 뽕뽕하던 것이 봄날을 맞이한 듯 따뜻해지고 향기로워졌다. 다투는 소리가 없어지고 불평하는 소리도 없어졌다. 수군거리는 모습도 사라지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없어졌다. 모든 신자들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연합하였다.

아. 세상 일이란 마음 먹기에 따라 이렇게도 크게 달라지는구나. 썩어가는 곳이라 해도 꼭 그것을 수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구나. 앓는 이라고 하여도 꼭 뽑아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구나. 서로 이해해

주고 서로 한مام으로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구나. 정말.

맥스가 집을 나간 지 한 두어달쯤 지났을까. 책상 머리에 앉아 컴퓨터를 뒤적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의 비명에 가까운 고향소리가 들린다.

“여보. 바깥을 내다보세요.”

나는 바깥을 내다본다. 릴리가 집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 바깥 말라서 얼굴은 검정숯 같다. 눈도 한길이나 내려앉았다. 걸음걸이가 몹시 허느적거린다.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버림을 당한 후로 줄곧 사막을 헤맸나 보다. 들쥐나 들토끼를 잡아 먹었겠지.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숨기도 하고 도망도 쳤겠지. 바람에 묻혀 오는 옛집의 냄새를 맡으면서 줄곧 이리로 왔을 게다. 어디서 물을 마셨을까. 사막에는 물이 없다. 간혹 내리는 새벽이슬을 훔아 먹었을까. 이 원수 같은 개새끼. 참으로 끈질긴 놈이다.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맥스는 오지 않고 죽도록 미운 릴리만 돌아왔다.

나는 우선 급한 대로 세수대야에 물을 가득 담아 들고 릴리를 마중 나간다. 릴리가 서먹한 표정으로 꼬리를 흔드는등 마는등 하면서 나를 본다. 그리곤 대가리를 대야에 처박고 물을 마시기 시작한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놈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놈은 가만히 있다. 별관에다 내버린 주인을 응징하기 위해 온 놈 같지는 않다.

나는 혹시나 하고 바깥을 내다 본다. 피투성이가 된 맥스가 나타날 법도 하다. 그러나 끝내 맥스는 나타나질 않는다.

아침엔 살을 찢러대는 날카롭고도 썩늘한 공기. 그걸 마시면 온몸이 싸아하게 공기와 동화한다. 그리고 온 하늘에 가로로 세로로 구름을 뚫고 뻗쳐 나가는 희망찬 아침햇살. 그것을 보고 있으면 온몸이

알지 못할 기운에 휩싸여 부르르 떨린다. 저녁이 오면 하늘은 크고 작은 별들로 가득 찬다. 별들은 숯불처럼 이글거린다. 어떤 큰 별은 금방이라도 땅으로 흘러내릴 기세다. 하늘에서 무슨 엄청난 계시가 내릴 것 같은 분위기다.

한낮엔 모양이나 움직임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구름이 하늘을 수놓는다. 아무런 기술이나 재주도 없이 그냥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면서 시간에도 공간에도 전혀 관계 없이, 의무도 없이 책임도 없이 떠 있는 저 구름.

때론 다 때려 부수고 말겠다는 듯 무섭게, 그야말로 무시무시하게 불어대는 바람, 새벽녘에 때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뭐가 그리 흥겨운지 위우위우 떠들어 대는 가이오테들, 그 소리에 질세라 마주 대고 목이 터져라 짖어대는 동네 개들, 슬그머니 집 가까이를 돌아다니다 들키면 온몸을 흔들며 뱀다 도망치는 뱀들, 그리고 쥐새끼는 물론 병든 토끼나 울타리를 넘는 뱀을 간단히 찍어 먹는 몸집 큰 가마귀 떼, 또 선인장을 갇아먹고 사는 들토끼들, 들쥐, 두더쥐. 떨기나무 부근에서 서성대는, 전갈을 쫓 빼담은, 아무래도 물리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초록색 전갈.

황혼이 되면 붉게 물든 하늘과 아주 무표정하게 앉아 있는 거의 다 죽은 산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다. 사전에 이름을 올릴 수 없는 묘한 색깔이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요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뀐다. 못났으면 못났기에 사랑스럽고, 잘났으면 잘난 대로 예쁜 자연. 아무렇게나 생겼기에 더욱 값있다. 남에게 잡아 먹혀도 군말하는 짐승 없다. 삶과 죽음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간의 손이 덜 미칠수록 더 좋은 자연. 바람이 있고 모래가 있고 썩돌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신이 있는 자연.

오. 루췌언 벨리.